

統一新羅時代 幢竿支柱와 石橋

李 浩 官

또한 石橋 역시 佛國寺의 蓮華橋와 七寶橋·白雲橋를 포함하여 이것 역시 慶州를 中心하여 집중된 것을 보면 記錄에 남아 있고 현재는 遺存치 않은 것까지 합하여 불과 一〇餘基가 있을 뿐이다.
이상의 것들을 형태와 양식상으로 分類하여 통일신라시대 各寺刹內에 設置된 幢竿支柱와 도처에 축조된 石橋의 傳來발전 과정은 中國의 각종 교량들의 발전과정과 유형을 비교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二、石製幢竿支柱와 石橋

一、序 言

(一)、石製幢竿支柱

統一新羅時代에 고도로 발달하였던 石造彫刻의 造形物中 石塔 石佛 石燈 石碑 石槽 등에 對하여서는 그 나름대로 遺存되어 오는 歷史的 遺物들로서 하나같이 심세하고 美麗한 手法과 樣式 그리고 形態에 對하여서 當代를 代表할만한 藝術品으로서 이미 數多한 著書와 重要的 研究論文으로 發表되어 그 發展過程과 樣式、形態들에 對하여는 정도 整理 究明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石製幢竿支柱와 石橋에 대하여는 一部 研究論文 以外에 이렇다 할 구체적 방법으로 形式과 樣式에 대하여 자세히 發展過程을 究明한 것이 없는바 筆者는 미려하나마 이 점에 유의하여 당간지주와 석교에 對한 형태와 양식 그리고 이들의 變遷과정을 들어 所見을 정리 밝히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現在까지 遺存되어 오는 幢竿支柱는 統一新羅時代、高麗時代까지 國家的으로 指定된 文化財로는 全國에 불과 三二基가 있고, 그 以外에 朝鮮王朝時代 이르기까지의 非指定된 幢竿支柱와 石橋는 상당수 遺存되어 오고 있는 實情이다.

이들 幢竿支柱에서 統一新羅時代에 속하는 것은 銘文이 陰刻되어 있는 安養中初址寶曆二年銘 幢竿支柱를 비롯하여 慶州地區를 中心해 全國에 二三基가 遺存되어 오는 것에 불과하다.

全國에는 현재 慶州를 中心한 地域을 포함하여서 統一新羅時代에 屬하는 幢竿支柱는 指定된 것을 합하여 불과 二三基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명된 바로서는 그 製作 建立年代를 寺刹의 建立과 創建年代에 기준하여 統一初期부터 末期까지로 時代를 區分 分類하여 왔다.
이와같은 分類에 근거하여 본다면 統一初期에 해당되는 것은

- 慶州望德寺址幢竿支柱(寶物六九號)를 비롯해
- 榮豐宿水寺址幢竿支柱(寶物五九號)
- 溟州掘山寺址幢竿支柱(寶物八六號)
- 慶州三郎寺址幢竿支柱(寶物一二七號)
- 서울莊義寺址幢竿支柱(寶物二三五號)
- 榮州浮石寺幢竿支柱(寶物二五五號) 등 六基를 들 수 있고

統一中期에 해당되는 것은

- 金提金山寺幢竿支柱(寶物二八號)를 비롯해
- 慶州四天王寺址幢竿支柱
- 高靈池山洞幢竿支柱(寶物五四號)
- 慶州芬皇寺幢竿支柱

江陵大昌里幢竿支柱(寶物八二號)
 瑞山普願寺址幢竿支柱(寶物一〇三號)
 慶州普門里幢竿支柱(寶物一二三號)
 公州班竹洞幢竿支柱(寶物一五〇號)
 公州甲寺幢竿支柱(寶物二五六號)
 益山彌勒寺址幢竿支柱(寶物二三六號)
 慶州佛國寺幢竿支柱二基
 慶州南潤寺址幢竿支柱等 一三基를 들

수 있다.

그리고 統一末期에 해당되는 것은

安養中初寺址寶曆二年銘幢竿支柱(寶物四號)

를 비롯하여

江陵水門里幢竿支柱(寶物八三號)
 大邱桐華寺幢竿支柱(寶物二五四號)
 慶州普門里短幢竿支柱等 四基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幢竿支柱들은 個個의 특성과 樣式形態 등에 따라 考察하여 究明된 것이 아니라 寺刹의 創建과 建立年代에 맞추어 分類究明하였을 뿐 統一新羅時代全般에 걸쳐 類型別에 의한 樣式和 形態로서 分類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본다.

이와같은 점으로 볼때 筆者의 意見으로는 當代의 幢竿支柱를 全體的으로 觀察해 대략 4가지 類型으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卽時代別의 分類도 重要하겠지만 이들 년간지주를 통일초에서 부터 말기까지 양식과 형태상에 있어서의 特異點을 고려하여 分類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다시말하여 第一型式에 속하는 A形은 中初寺址幢竿支柱와 같이 頂部를 弧形으로 하여 自然石을 다듬어서 各면의 隅角을 죽이고 上段에 杆溝

을 設定하며 또한 外側面으로 내려오다가 上段보다 一段을 높게 하여 下部까지 上部와 平行으로 造成하고 竿柱 二個所에 圓形 杆孔을 設定하고 地臺石을 구비한 가장 자연스럽고 간결한 幢竿支柱를 들 수 있다.

또한 慶州普門里幢竿支柱와 같이 幢竿支柱의 上段에서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으로 처리하고 支柱의 前後面 周緣部分의 外側 모서리 角을 죽이어서 造成하고 支柱의 上中下에 方形孔 또는 圓孔의 杆孔을 구비한 것을 들 수 있다. 第二型式인 B形은 金山寺幢竿支柱와 같이 外面에는 上端部에서 부터 下端部까지 兩緣邊을 따라 一段의 縱文條를 陽刻하여 彫飾한 형태를 갖추고 頂部는 圓弧로 되고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孔을 上中下 三個處내지 二個處를 內側面에다 造成하고 안상을 각출한 기대석을 구비한 형태를 들 수 있다.

第三型式은 C形으로 佛國寺東便의 幢竿支柱와 慶州三郎寺址幢竿支柱와 같은 것으로 支柱의 上段面을 圓弧로 처리하면서 外面의 兩緣邊을 따라 一段의 縱帶를 彫飾하여 내려오다가 支柱의 中間部分부터 一段낮게 有溝形식을 갖춘 당간지주를 들 수 있다.

끝으로 第四型式은 D形으로 慶州普門리에 位置한 短幢竿支柱形式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形式과 形態는 特殊形式으로 支柱의 内外모서리 角을 죽였으며 支柱上段을 圓弧로 하고 外側面에다 花房을 갖춘 八瓣單葉의 蓮華文을 彫飾하였으며, 內側面에는 장방형의 杆溝를 造成한 보기 드문 형식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예는 이시기에 오직 唯一한 예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런 類型의 短幢竿이 後代의 高麗나 朝鮮王朝時代의 幢竿支柱形式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으로 볼때 統一新羅初期에서 부터 末期까지는 이런 四型式이 時代의 發展과정과 관계없이 類型別로 混在 分布되어 傳來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이와같은 四型式에 맞추어 個個의 幢竿支柱를 初期부터 末期까지 分類하여 보면

A形(第一型式)

望德寺幢竿支柱(統一初期)

宿水寺址幢竿支柱(統一初期)

掘山寺址幢竿支柱(統一初期)

慶州四天王寺址幢竿支柱(統一中期)

慶州芬皇寺址幢竿支柱(統一中期)

慶州普門里幢竿支柱(統一中期)

莊義寺址幢竿支柱(統一初期)

浮石寺幢竿支柱(統一初期)

江陵大昌里幢竿支柱(統一中期)

公州甲寺幢竿支柱(統一中期)

佛國寺西便幢竿支柱(統一中期)……支柱二개中 一개

安養中初寺址幢竿支柱(統一末期)

江陵水門里幢竿支柱(統一末期)

大邱相華寺幢竿支柱(統一末期)

慶州南潤寺址幢竿支柱(統一中期)

B形(第二形式)

金山寺幢竿支柱(統一中期)

瑞山普願寺址幢竿支柱(統一中期)

公州班竹洞幢竿支柱(統一中期)

益山彌勒寺址幢竿支柱(統一中期)

C形(第三形式)

慶州三郎寺址幢竿支柱(統一初期)

高靈池山洞幢竿支柱(統一中期)

佛國寺東便幢竿支柱와 西便幢竿一柱(統一中期)

D形(第四形式)

慶州普門里短幢竿支柱(統一末期)와 같이 分類된다고 본다. 이

에 따라 A形에서부터 D形에 이르기까지의 幢竿支柱 個個의 것을 細分하여 說明하면

① A形(第一形式)

望德寺址幢竿支柱(寶物六九號)(圖一)

所在地 慶尙北道 慶州市 排盤里

크기: 支柱高二,四四m

支柱一邊表 〇,四八m와 〇,四四m(方形)

材料: 花崗石

寺址의 西便에 原位置대로 遺存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六五cm의 間격을 두고 兩支柱가 東西로 相對하여 서있다. 兩支柱의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고 外面도 역시 間接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前,後兩側面도 同一하게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外面만은 兩支柱가 同一하게 兩邊의 모(角)를 上端에서 一五七cm까지 죽여서 약간의 장식적인 意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兩支柱의 上部는 內側面의 위에서부터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리고 外部로 六cm정도 窄겨져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外面은 별다른 형태가 아닌 단순 間接하나 前,後面에서 보면 兩支柱의 頂上部分이 圓弧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은 上部에 一個所만 造成하였는데 그것은 相對한 內面의 上端에 長方形의 杆溝을 파서 杆을 施設케 하였던 것 같다.

現在 兩支柱脚의 下部가 상당히 깊게 露出되어 自然石面이 드러나 보이는 데 주위에 부속되는 石材가 보이지 않아 始初의 竿臺나 支柱의 基壇部가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로서 이 幢竿支柱는 各面에 彫飾은 없으나 造成양식과 手法은 그렇게 發達되지 않았던 初期의 面을 보이는 소박장중하며 堅實한 氣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望德寺는 史記에 ①의 하면 神文王 五年(AD, 六八五)에 창건된 사찰인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당간지주도 사찰창건시 동

시에造成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宿水寺址幢竿支柱(寶物五九號)(圖二)

所在地..慶尙北道榮州郡順興面內竹里(紹修書院境內)

크기..支柱高三、六五m 支柱一邊長〇、五三〇、三六m

材料..花崗石

現在紹修書院境內에 여러石材料들과 同時遺存되어 오는 支柱로서 兩支柱가 東西로 相對하여 서있다. 支柱의 相對하는 面의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바깥의 外面은 中央에 稜線形의 縱帶를 彫飾하였고, 또한 支柱의 頂上에서 一一七cm 밑에서부터 二三四cm까지 사이는 支柱面이 줄어 들어서 마치 넓은 홈을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外面彫飾手法는 統一期의 幢竿支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앞뒤 兩側面에는 兩支柱가 同一하게 幅七cm의 外緣線帶文을 돌리고, 그 中央에는 다시 縱으로 稜線을 彫飾하였다.

外側面의 上部는 頂上에서부터 等長하게 경사를 지워나가 中間에一段의 굴곡을 이루었다. 特히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은 頂上부의 안쪽면에 長方形의 杆溝를 施孔하여 만들었으며 그리고 支柱를 받치는 地臺石이 있었던 듯하나 현재는 長大石, 一枚式이 남아 있을 뿐 별다른 部材가 없다. 이로써 幢竿支柱의 全體的 調和는 支柱의 높이에 비해 細長하게 治石加工하였고 各面에 彫飾한 手法는 간결하면서 단아하여 이 시대의 秀作에 속하는 支柱는 宿水寺 創建과 同一하게 造營建立된 統一初期의 作品으로 본다.

掘山寺址幢竿支柱(寶物八六號)(圖三)

所在地..江原道溟州郡邱井面鶴山里

크기..支柱高五、四m

材料..花崗石

現在掘山寺址境內에 우뚝 서있는 兩支柱는 동일하게 一石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거대한 石材料를 사용하여 造成하였으나 國內에서는 보기 드물게 規模가 가장 큰 幢竿支柱가 아닌가 한다.

現在 支柱의 下部가 매몰되어 있어 基臺石等의 構造는 詳細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國內에 殘存한 大部分의 幢竿支柱들은 支柱의 側面과 外部各面에 굵게 조각한 線條文이나 陰刻의 홈을 파서 일반형의 樣式을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이 支柱는 加工手法도 매우 素朴하여 形式上他 支柱와 차이가 난다.

支柱의 四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는 평면으로 처리하였으며 支柱下部는 當初 治石時에 생긴 허다한 線條가 멸되지 않고 뚜렷이 남아있다. 特히 相對한 支柱의 內面과 外側面은 垂直을 이루었고, 또한 前後兩面은 거의 上端部가 까지 수직을 이루다가 頂部에 이르러서는 兩側面에서부터 차츰 등글게 ㄱ아 曲線을 이루고 있으며, 頂上은 尖形으로 처리하였다.

支柱에는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을 上, 下 二個所에 마련하였는데 上部의 杆孔은 內側面에다 施孔하였으나 下部의 杆孔은 上部와는 달리 支柱의 三분지 一쯤 되는 위치에 圓孔을 外側에서부터 貫通시켜서 杆을 끼우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가 거대한 뿐만 아니라 手法도 강인한 맛을 보이고 있어 통일초의 웅대한 造型미를 나타내는 작품 중의 하나로 본다.

莊義寺址幢竿支柱(寶物二三五號)(圖四)

所在地..서울特別市鍾路區新營洞二二八一

크기..現高三、六三m 支柱邊長〇、七六〇、四五五m

材料..花崗石

現在 洗劍亭國民學校 부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상대는 兩支柱가 東西로 相對하여 있으나 支柱의 基壇部는 잔존치 않아 原形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서로 相對한 支柱의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外面도 同一하다. 그리고 前後面도 역시 같으나 단지 外面의 各邊 隅角을 죽이어서 약

간의 장식성을 보일 뿐이다. 兩支柱의 頂部는 內面上端에서 一六cm 정도에 上面이 평탄하고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形을 이루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태는 前後面에서 보면 上端部가 圓弧인 사다리꼴로 보인다.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은 상부 一個所에만 圓孔의 杆溝를 마련하였을 뿐 단순한 구조이다. 全體的으로 보아 堂간지주는 크기에 비해 중후한 맛을 보이며 杆溝 이외에는 별다른 施孔彫飾이 가해지지 않는 素朴한 支柱라 할 수 있다.

莊義寺는 三國史記에 ② 나타난 記錄에 의하면 統一新羅時代 直前인 太宗武烈王六年(AD, 六五九年)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바 이 支柱 역시 樣式手法상 寺刹창건당시의 작품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統一初期의 작품으로 본다.

浮石寺幢竿支柱(寶物二五五號)(圖五)

所在地: 慶尙北道榮豐郡浮石面北枝里浮石寺境內

크기: 支柱高 四、一八m, 支柱一邊長 〇、五五×〇、五六m

材料: 花崗石

現在 浮石寺境內에 位置하고 있으며 兩支柱는 一m 간격을 두고 東西로 상대하여 있다. 支柱의 相對한 上面의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外面도 역시 동일하나 兩隅을 약간씩 죽였다. 그리고 支柱의 前後兩側面에는 同一하게 周緣에 五、四cm 폭의 一條의 線文帶를 양각하였고 上部에서는 이 線文帶와 연결되어 중앙에도 五、一cm 폭의 一條線文帶가 縱으로 양각되어 있다. 특히 支柱頂部는 內面上端에서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이루었고 外部로 짊어져 一단의 窟窿을 두었는데 前後面의 中央縱線帶가 이 窟窿부에서 垂直으로 된다.

支柱는 前後方에서 보면 上部는 頂部에 二段의 流麗한 圓弧가 경사지게 彫出되어 있고 側面은 三條의 縱線文帶로 彫飾되어 있는 상태이다. 堂간을 고정시키는 杆은 상부 一개소에만 長方形의 杆溝를 施孔하여 있다. 현재 지주의 기단부는 잔존치 않으나 노출된 부분의 유구로 미루어 보아 장방형의 기단이 시설되었던 것 같다. 양 지주 사이에는 간주를 받는

원형 杆臺石이 남아있어 杆臺는 圓座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원좌의 주변에는 원호와 연판문으로 장식하였으며 上面 중앙에는 三〇cm의 圓孔을 시공하여 幢竿의 底面을 받도록 하였다.

全體的으로 보아 대체로 소박미려한 지주로서 안정감을 주며 간결하고 단아한 조각수법은 역시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작품이라 하겠다. 부석사 역시 통일신라시대 초창기인 文武王一六年(AD, 六七六年)에 義湘祖師에 ③ 의해 창건된 바라고 하는데 이 지주 역시 사찰창건과 함께 창건 당시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江陵大昌里幢竿支柱(寶物八二號)(圖六)

所在地: 江原道江陵市玉川洞

크기: 支柱高 五、一m

材料: 花崗石

現在 원위치에 原狀대로 兩支柱가 一m 간격을 두고 南北으로 相對하여 있다.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고 外面도 역시 동일하다. 아울러 支柱의 前後側面도 內側面과 같이 하등의 彫飾이 없으나 外面의 兩邊隅角을 약간 죽여서 장식 의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지주의 頂部는 內面的 上단에서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이루었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杆은 상부 一개소에만 內面에 長方形의 杆溝를 마련하여 杆을 끼우도록 했다. 특히 現在 當간기단부의 석재가 잔존치 않아 정확한 원형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나 단지 기단부에 長大石수메로 長方形의 地臺石을 구축한 것으로 보아 기단부도 短形이 아니었던가 짐작될 뿐이다. 彫飾이 없는 간결한 양식을 갖추었고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견실한 수법으로 보아 慶州望德寺址幢竿支柱와 ④ 거의 같은 계통으로 보여지며 造成年代도 同時代로 보아 통일신라중기로 보아도 무방한 작품으로 본다.

公州甲寺幢竿支柱(寶物二五六號)(圖七)

所在地: 忠清南道公州郡鷄籠面中壯里甲寺境內

크기: 支柱高 三m 鐵製幢竿高 一五m

材料: 花崗石

甲寺境內에 위치하고 있는 幢竿支柱로 鐵製幢竿과 基壇까지 구비하고 있는 귀중하고 완전한 支柱이다. 兩支柱는 東西로 相對하여 있는데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하등의 彫飾彫刻이 없고 外面과 前後側面에도 동일한 彫飾이 없는 소박한 支柱이다. 支柱의 頂部는 上面이 평평한데 外側面으로 접어드는 모서리의 각을 크게 죽이어 弧線을 그리며 원만한 四分圓을 이루고 있다. 支柱에 施孔한 杆孔은 上部 一개소에만 施孔하여 現在 鐵製幢竿二四節目을 고찰시켰다.

양支柱의 각 단면이 폭四七cm 두께五九cm의 장방형인데 上下部가 거의 같은 크기로 되어있어 든중한 것같이 보이나 上端의 圓弧가 支柱의 基단부와 잘 어울리어 장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支柱의 基단부 基대석은 현재 배설되어 있고 單層의 基단에는 장대한 二대석의 장방형기단을 형성하였으며 基대석상면 접착부분에는 二개소에 基대석을 결구시키는데 鐵釘이 남아있고 그리고 基대석 측면 左側에는 상하에 굽을 돌렸으며 또한 各面에는 眼象을 陰刻彫飾하였는데 左右側은 二區式이고 前後面에는 三區式이다. 이 안상은 그 彫刻수법이 통일신라시대의 장식적 기법을 갖춘 것으로 당간支柱의 연대추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주목된다. 兩支柱사이의 당간은 현재 직경五〇cm 鐵筒二四個를 연결한 二四節目의 鐵製幢竿이 있으나 原來는 二八個의 鐵筒이 있다 한다. 甲寺는 統一新羅時代初期인 文武王一九年(AD 六八〇)에 建立된 것이라고 전하는 바 이런 점으로 볼때 基단부의 안상수법과 사찰창건연대 그리고 양支柱의 조성수법이 일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支柱와 基단부 안상수법은 사찰창건 후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통일中期の 作風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본다.

佛國寺 西便幢竿支柱(圖八)(插圖一)

所在地: 慶尙北道慶州市進峴洞佛國寺境內

크기: 全高三、〇六m 支柱一邊長 四八×三三cm

材料: 花崗石

佛國寺蓮華橋 七寶橋와 白雲橋 靑雲橋의 境內에 위치한 二基의 幢

竿支柱중 西便에 위치한 支柱이다.

이 支柱는 서로 다른 양식을 갖춘 것으로 後代에 다른곳에서 이전 조립하여 건립한 듯하다. 東西로서 있는 二基의 당간支柱는 서로 二m六〇c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西便의 당간支柱는 支柱가 六四cm 거리를 두고 東西로 相對하여 있으며 동측支柱는 相對한 內面을 제외하고 各面의 外緣모서리면을 따라 一조석의 縱線文帶를 자출시켜 周緣帶를 갖추고 있다. 특히 支柱의 上端頂部는 弧線을 그리다가 弧線中央部에서 一단의 屈曲을 주었다가 다시 弧線을 그리면서 外面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相對한 西측支柱는 四面이 同一하게 하등의 彫飾이 없는 소박한 支柱이고 頂部만이 四分圓의 弧線을 이루었다. 특히 支柱에 당간을 고정시키는 杆溝는 支柱 上端頂部에 凹形의 杆孔을 設定하였으며 下部에 이르러서는 方形의 杆孔을 內面에 施孔하였다. 그리고 兩支柱 사이에는 폭六一cm의 당간을 받치는 圓孔의 杆座가 놓여 있다. 특히 이 幢竿支柱에서 주목되는 점은 東便의 支柱에 있어서 支柱 上단에서 一一〇cm, 하단부에서 一一四cm의 거리에 이르러 중간부분 八二cm 정도를 一단 낮추어 잘록하게 한 것이 주목된다.

의장 수법과 양식등으로 미루어 보아 양支柱는 서로 다르나 역시 통일신라 중기 작품과 초기 작품의 합작조립으로 생각된다.

安養中初寺址幢竿支柱(寶物四號)(圖九)

所在地: 京畿道安養市石水洞 二二一一

크기: 支柱高三、六四m 支柱一邊長 〇、五一五×〇、三六三m

材料: 花崗石

中初寺址 原位置에 殘存하고 있는 幢竿支柱는 양支柱가 東西로 八五cm 간격을 두고 상대하여 서 있다. 相面하는 內側面과 外面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고 前後側面에도 장식적인 彫刻과 의장이 없는 소박한 支柱이다. 양支柱의 상부는 내측면의 상단에서 외면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으로 이루어졌고 골목은 없이 등글며 위로부터 一、二二m 길이 부분까지 六cm 두께로 전면이 깎여져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兩支柱는 外面에서 보면 頂

부의 넓직한면이 음각된 것 같고 前後面에서는 上端部가 流麗하게 圓弧를 이루면서 上部만 정성드려 磨研한 것 같이 보인다.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은 兩柱 모두 上, 中, 下의 三개소에 杆溝를 마련하였으며 上端部の 杆孔은 長方孔으로 되어 있고 中과 下部는 貫通된 圓孔으로 되어 있다. 현재 支柱의 基壇部가 殘存치 않아 원형은 알 수 없으나 다만 基壇部에 長大石이 外側에 각기 一매씩 놓여 있어 基臺를 삼고 있을 뿐이다. 특히 杆臺는 支柱사이의 長大石中心部에 徑 三六cm의 圓孔을 施孔하고 그 周緣에 圓帶를 둘러서 마련하였다. 이 幢竿支柱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中初寺址라 칭하는 銘文이 서쪽 支柱의 外側面에 刻字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造成年代와 그 연혁을 刻文한 長文의 銘文이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어 統一新羅時代 興德王元年 八月 六日(寶曆二年歲次丙午八月朔六辛丑日, AD 八二六)의 採石하와 이듬해인 丁未年(AD 八二七) 二月 三〇日에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絕對年度가 刻記된 오직 唯一한 이 시대의 당간지주의 하나이며, 이 시기를 전후한 당간지주의 編年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단아한 점으로도 당시의 작풍을 알 수 있는 遺物이다.

江陵水門里幢竿支柱(寶物八三號)(圖一〇)

所在地: 江原道江陵市玉川洞

크 기: 支柱高三, 七m

材料: 花崗石

現在寺址로 추정되는 곳이 洞里로 變하여져서 原來의 寺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른 遺構도 찾아 볼 수 없는 實情이다. 原狀대로 原位置에 一m의 간격을 두고 양지주가 東西로 상대하여 서 있다. 相面하는 내측면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고 外面도 동일하다. 前後面에도 또한 內外面과 같이 별다른 彫飾이 없는 간결한 支柱로 되어 있다.

兩支柱의 頂部는 內面上端으로부터 外面으로 내려 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外部로 攙져졌기 때문에 前, 後方에서 보면 頂部 끝이 四分圓으로 되었고 이로 인한 圓弧는 매우 流麗하다.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은 上部에만 施孔하였는데 內側面 上端에 長方形的의 杆溝로 하여 杆을 設置하였다. 그리고 現在 下部는 相當히 매몰되어 기단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兩支柱의 단면은 一邊 七〇cm의 方形에 가까우나 정상부로 올라갈수록 약간씩 좁아져 일정치 않으며 各面의 治石 역시 정교하지 못하며, 하등의 조식이 없는 支柱로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형태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素朴誠實한 手法을 나타내고 있고 上部의 杆孔과 圓弧의 柱頭로 보아 統一新羅時代末期의 造成樣式을 갖춘 幢竿支柱라 하겠다.

桐華寺幢竿支柱(寶物二五四號)(圖一一)

所在地: 慶尙北道大邱直轄市東區道鶴洞桐華寺境內

크 기: 支柱高三, 一m 支柱一邊長〇, 七六m×〇, 三四m

材料: 花崗石

桐華寺境內의 原位置로 추정되는 곳에 六六cm의 간격을 두고 東西로 相對하여 서 있는 支柱이다.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하등의 彫飾이 없고 外面은 兩側 隅角部分을 죽이어 中心에 縱으로 稜線을 彫刻하였다. 前, 後兩側面에는 역시 周緣에 隅角은 죽였을 뿐 外面과 같이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支柱의 頂部는 頂上 中央이 尖形으로 되어 있고 前後를 등글게 하였다. 또한 兩支柱 中間쯤 되는 곳에는 內面을 除外한 前後外側三면에 約 一m 길이로 일단 낮추어 治石하여 上, 下部보다는 지주의 두께가 얇아져 支柱外側을 陰帶로 둘러 장식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意匠法은 統一新羅時代 當간지주의 意匠彫飾方法으로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때문에 兩支柱를 前後方에서 보면 地주의 中心에 額이 陰刻된 듯한 감을 주고 있다. 外側面에서 보면 上端은 中心의 尖端兩便이 弧形을 이룬 長柱로서 中間에 역시 支柱몸체와 같이 額이 淺刻되게 陰刻된 듯하게 보인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杆은 上, 下 二개소에 杆溝를 마련하여 施孔하였으나 上部는 長方形의 杆溝이고 下部는 下端가까이에 圓孔의 杆孔이나 동쪽의 것은 徑 一五cm의 것을 貫通시켰고 서쪽의 支柱杆孔은 徑 一五cm 길이 一七cm의 圓孔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兩支柱의 基臺는 현재 없어져 결실되어 주위에 석재 잔편이 殘存하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형태는 경쾌하고 견실장중한데 제작양식과 수법상 中한 人상을 주는 통일신라시대 하대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桐華寺는 統一新羅時代 下代인 興德王七年(AD 八三三)에 心地王師가 創建한 것이라 한다 但 이당간지주의 조성년대도 제작양식상 이시대와 부합되지 않는가 生覺된다.

慶州芬皇寺址幢竿支柱(圖一三)(插圖二)

所在地: 慶州市九黃洞 三一五一二

크기: 支柱高三 m 八〇 cm 支柱一邊長 四一×五一 cm

材料: 花崗石

現在 芬皇寺 南面に 南北으로 相對하여, 서로 七〇 cm의 距離를 두고 相面하여 서있다. 兩支柱의 相面하고 있는 內面과 前後側面 그리고 外側面등에는 아무런 彫飾이나 彫刻의 흔적이 없는 素朴한 面으로 처리하였으며 支柱의 頂部도 역시 四分圓의 弧線으로 하였으며 弧線이 끝나는 地點에서부터 下部까지 外側面의 隅角을 죽였으며, 頂部에서 二〇九 cm 되는 地點에서부터 下部까지는 上面보다 一段 一 cm 정도 높이어 下端部로 가면서 幅이 점차 넓어지게 하여 造成하였다.

또한 兩支柱의 內面에는 徑一五 cm의 圓孔의 杆孔을 貫通되게 하여 三箇所에 배치하고 있는바 上端의 杆孔과 中間의 杆孔과의 距離는 一一 cm 이고 中間의 杆孔과 下部의 杆孔거리는 一一〇 cm 이다.

특히 兩支柱사이에는 幢竿을 받치는 龜趺座를 마련하고 있는데 龜趺座의 龜頭와 龜甲은 몹시 되화되고 圖式된 것이며 龜甲 中央에 마련한 方形의 幢竿座는 一段의 높이에 前後邊에는 七瓣의 蓮花로 陽刻彫飾하였을 뿐 별다른 특징있는 것은 없다.

龜趺座의 形式은 時代가 下降하나 支柱의 製作樣式과 素朴堅實한 手法으로 보아 統一新羅中期以後의 作品으로 본다.

慶州四天王寺址幢竿支柱(圖一三、插圖三)

所在地: 慶州市排盤洞 九五—六五

크기: 支柱高三三三 cm 支柱一邊長 四三×三二 cm

材料: 花崗石

慶州에서 佛國寺로 가는 道路邊에 南北으로 相對하여 있는 幢竿支柱로서 兩支柱는 五三 cm의 間격을 두고 相面하여 있다.

兩支柱의 內外面과 前後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頂部는 역시 四分圓의 弧線으로 되어있으며 頂部에서 부터 下端까지는 外側面의 隅角을 죽여서 처리하고 있으나 下部가 가까이 와서는 一段높여서 造成하였다. 그리고 兩支柱에는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孔을 三個所에 마련하였는바 上部의 杆孔과 下部의 杆孔은 同一한 方形의 杆孔으로 貫通되게 하였으나 中間의 杆孔은 徑一二 cm의 圓孔으로 貫通되게 처리한것이 흥미롭다. 全體적으로 樣式과 形式이 堅實하고 素朴하여 別로 크지않는 幢竿支柱로 그 造成年代는 四天王寺 創建時^⑧ 同時에 세운것이 아닌가 한다.

慶州普門里幢竿支柱(寶物二二三號)(圖一四、插圖四)

所在地: 慶州市普門洞

크기: 支柱高三·八 m、支柱下端一邊長〇、七×〇、四二 m

支柱上端一邊長〇、五七×〇、二五 m

材料: 花崗石

現在 金堂址와 雙塔址 그리고 建物들의 礎石等이 證연하게 남아있고 寺址에서 「普門」이란 銘文이 있는 瓦片이 發見되어 普門寺址^⑨임이 確인된 유적지에 幢竿支柱는 寺址 西南方의 原位置로 추정되는 곳에 六四 cm의 間격을 두고 南北으로 相對하여 서 있다.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고 外面도 동일하다. 또한 前、後側面도 아무 彫飾이 없는데 外側面만 兩邊의 隅角을 죽이어 裝飾性을 나타내고 있다. 北便의 支柱는 上段部가 절단되었으나 南側은 完全하다. 南側支柱의 頂部는 內面上端에서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外部로 斜어졌으며 頂端以下는 斜線을 그리 二 m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리

고 그 以下에서부터 下端部까지는 內側面을 제외하고 三面이 넓이나 두께가 二~三cm 정도 굵어졌다. 이렇게 때문에 支柱를 外面에서 보면 下部가 굵어보여 前, 後方에서는 頂端의 圓弧와 基根部가 調和되어 安定感을 주면서 流線形을 한 細長한 形態로 보인다.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은 上, 中, 下 三個所에 杆孔을 施孔하여 장치하였던 듯하다. 이 杆孔의 施孔형태는 南北兩支柱가 同一하지 않는다. 南側支柱에서는 頂端에서 二八cm 밑에 長一七cm, 幅一五cm의 長方形의 杆孔이 貫通되고 다시 그 밑으로 各各 一二九, 五cm의 間격을 두고 같은 크기의 長方形 杆孔이 貫通되어 있다. 그러나 北側支柱는 南側支柱의 各貫通된 杆孔과 相對되는 位置에다 長一三cm 폭 一五cm 길이 一七cm의 長方形의 杆孔을 施孔하였을 뿐 貫通되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兩支柱를 받고 있던 基壇은 現在 殘存치 않고 있으며 다만 支柱사이의 基座에 長一二七cm, 幅六七cm, 高三六cm의 長方形 竿臺가 있을 뿐이나 아무런 彫飾이 없다. 全體의 形態가 壯大素朴하며 現地에 殘存한 統一期的의 石造物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幢竿支柱도 이들 石造物과 그 樣式이나 手法 등이 同一하여 統一新羅時代 中期로 推定할 수 있는 作品으로 보며 또한 支柱의 一柱身에만 貫通孔을 施孔한 例는 八公山 桐華寺 幢竿支柱의 東쪽지주의 下部에 貫通孔이 있어 西쪽 支柱와 다른 데 이러한 類例는 普門里 幢竿支柱와 桐華寺 幢竿支柱 등 극히 稀少한 例의 하나로 생각된다.

慶州南潤寺址幢竿支柱(圖一五、插圖五)

所在地: 慶州市塔正洞 七六八

크기: 支柱現高三, 五七m 上端部支柱一邊長 四五×五〇×三三 cm 下端部支柱一邊長 四五×六一×四五 cm

材料: 花崗石

慶州市羅井 東便約 三〇〇m 地點이며 昌林寺址에서 北便 水踏가운데 七〇cm의 間격을 두고 東西로 兩支柱가 相對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南潤寺址이다. 兩支柱의 양식과 형태는 동일하며 相面한 兩支柱의

內外前後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는 素朴한 것으로 되어 있다. 兩支柱의 頂部는 弧形을 이루면서 되어 있고 支柱 頂端에서 부터 二一二cm의 外側面下部까지 側面隅角을 죽여서 약간의 意匠手法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以下는 內外側面의 隅角을 그대로 남겼다. 또한 支柱의 頂端部 內側面에는 幢竿을 고정시키는 폭 六cm, 八cm 길이 八cm 十字形 杆溝를 마련하였고 頂端部에서 五三cm 되는 지점에 兩支柱 동일하게 貫通된 徑一八cm의 圓形杆孔을 施孔하였으며 이 杆孔에서 一三五cm의 지점에 徑二二cm의 圓形杆孔을 貫通되게 하고 시공되어 있다. 十字形 杆溝와 圓形杆溝 二孔을 합쳐 모두 三個이며 특히 頂端部 內面에 시공한 十字形 杆溝 施工方法은 그 類例가 드문 것이며 固定시키는 幢竿의 움직임에 약간의 유격을 두어 힘의 분산을 역학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구상한 듯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당간지주는 소박장대하여 普門里 幢竿支柱 등과 類形이 같은 것으로 역시 통일신라시대 중기 작품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한 듯 하여 南潤寺 幢竿지주시에 조성한 당간지주가 아닌가로 생각한다. ⑩

② B形(第二型式)

金山寺幢竿支柱(寶物二八號)(圖一六)

所在地: 全羅北道金提郡金山面金山里金山寺境內

크기: 支柱高三, 五五m 基壇石一邊長 二, 〇八m × 一, 三五m

材料: 花崗石

金山寺境內에 原狀대로 兩支柱가 南北으로 相對하여 있다. 現在 兩支柱의 基壇石과 竿臺가 完存하게 남아 있다.

基壇部는 單層으로 구성되었는데 治石한 六枚의 長大石으로 地臺를 構築하고 그 위에 二枚石으로 結構된 基壇을 받고 있다. 基壇은 長方形으로 各面마다 上下에 굵을 만들고 左右에 撐柱가 刻出된 것 같은 形態를 하고 있다. 그리고 各面의 中央에는 하나의 撐柱로 양분하여 眼象一區式을 陰刻하였는바 前, 後面은 長形이고 兩側面은 短形이다. 또한 眼象의 樣式은 統一期的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基壇의 上面은 各邊의 隅

角을 죽이고 그 中央에는 圓形의 竿臺를 彫刻하여 幢竿을 받게 하였으며 竿臺周邊은 圓弧와 角形 받침이 刻出彫飾되었을 뿐이다.

南北으로 相對하여 相面하고 있는 兩支柱의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外面에는 支柱의 兩沿邊을 따라 縱帶를 陽刻하였는데 그 中央에 또 하나의 縱帶를 彫飾하였다. 前, 後 兩面에는 兩支柱가 同一하게 兩邊을 따라 周緣에 縱文帶를 陽刻하였다.

支柱의 頂部는 內面 頂上에서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外部로 짜져지되 一段의 淺은 屈曲을 두었다.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은 支柱의 上, 中, 下 三箇所에 杆溝를 設定하였는데, 三箇의 것이 동일치 않다. 上段의 內面에 設定한 杆溝는 長方形이고 中央의 것은 方形孔이며 下部는 圓孔으로 施孔한 것이 흥미롭다. 이와같이 杆溝三箇를 설정하는 예는 經주보문리당간지주, 익산미륵사지당간지주 등에서 그 格式을 볼 수 있다.

정연한 기단부와 양지주 外側 三面의 彫飾等 各部의 樣式手法은 國內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당간지주로 가장 완벽한 形式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金山寺의 創建이 記錄에 의하면 통일신라 愍公왕 二年(AD 七六六)에 眞表律師가 重創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⑪ 境內에 遺存하는 石蓮臺, 石鐘石塔 石燈等의 遺物과 비교할 때 이들 유물들이 통일신라시대 부터 고려 초기 까지에 걸치는 遺物들인바 이러한 事實을 감안할 때 이 당간지주의 造成年代도 통일신라시대 盛期인 8C 後半으로 제작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益山彌勒寺址幢竿支柱(寶物二二六號)(圖一七)

所在地: 全北道益山郡金馬面箕陽里

크 기: 支柱高 三、九五 m

材料: 花崗石

現在 寺址 境內에 東西로 九〇m의 거리를 두고 原位置에 二基가 遺存하고 있다. 양쪽 支柱는 크기가 같고 樣式이나 造成手法이 同一하여

같은 時期에 造成된 것으로 본다.

兩支柱는 각 五〇cm의 間격을 두고 東西로 相對하여 있으며 支柱를 받든 基壇部는 완전히 파괴되어 原形을 짐작할 수 없으나 基壇단은 長方形으로 數枚石을 結構하여 面石을 이루었는데 側面下部에는 一段의 받침을 刻出하였고, 또한 四面에 眼象을 彫刻하였다. 基壇의 上面에는 別다른 彫飾은 없으나 頂面에 圓弧와 角形의 三단 받침을 刻出하여 兩支柱를 받고 있고 幢竿을 받고 있던 臺石이 그 中央에 있었을 것이나 現在 남아있지 않다. 支柱는 內面에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內外側面에는 周緣을 따라 縱文帶를 돌리고 그 中央에 一條의 線文帶를 彫出하였다. 前, 後面에도 兩端을 따라 線文帶를 刻出하여 장식하였는데 中央에는 內外側面과는 달리 線文帶가 없다.

支柱의 頂部는 外面으로 弧線을 그리며 경사지다가 中間쯤에서 一段 屈曲을 두었다. 竿柱를 고정시키는 杆은 三箇所에 設定하였는데 內面 頂端은 長方形의 杆溝이고 中央과 下部는 일정한 間격으로 하여 方形의 杆孔은 施孔하였다.

또한 兩支柱는 頂部에 圓弧의 장식이 있어 下部보다 上部가 줄어들은 것 같이 보이거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대체적으로 이 당간지주는 장식이 적으며 형태도 淸楚美麗하고 造成年代도 그 自體의 樣式手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中期以前作品으로 추정된다.

公州班竹洞幢竿支柱(寶物一五〇號)(圖一八)

所在地: 忠淸南道公州郡公州邑班竹洞

크 기: 支柱高 三、二九 m

材料: 花崗石

現在 公州邑班竹洞民家속에 遺存하고 있는 바 이 일대를 百濟時代의 大通寺址라고 傳하고 있다. 支柱는 原位置에 東西로 상대하여 서 있으며,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으나 外面은 周緣을 따라 縱文帶를 陽刻으로 刻出하였고 前, 後兩側面에도 周緣을 따라 縱文帶를 陽刻으

로 刻出하였다.

支柱의 頂部는 內面上端에서 外面으로 半정도 平平하다가 그 밖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外部로 窄겨져서 一m 쯤 斜線을 이루어지면 自然스럽게 下部와 연결되어 있다. 이리하여 언뜻보면 頂面外側이 圓弧를 그리며 下部까지 流線型的 형태로 보인다.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은 上, 下 二개소에 杆溝를 마련하였는데 上端에는 長方形의 杆溝이고 下部는 內面쪽으로 方形孔을 마련하여 杆을 끼우도록 되어있다.

支柱를 받는 基壇部는 地臺石위에 單層 基壇이었는데 六·二五 당시 폭격에 의해 大破되고 동시에 東側 支柱 下半部도 파괴되었던 것이다. 長方形의 基壇上面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으나 各側面에는 眼象이 음각되어 있는바 그 手法이 통일신라시대 手法이다. 이 일대에서 수습된 石造物들은 현재 국립공주박물관 정원에 이관되어 있는바 이들 석조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羅代의 手法이 여실히 보이고 있어 造成年代도 통일신라시대 중기로 추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백제시대 유품들이라고 보나 백제시대에 제작 造成되었다는 단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역시 통일신라시대 중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普願寺址幢竿支柱(寶物一〇三號)(圖一九)

所在地: 忠清南道端山郡雲山面龍賢里

크기: 支柱高 四, 二m

材料: 花崗石

現在 普願寺址에 있는 五층석탑, 石槽, 法印國師寶乘塔^② 및 塔碑 등 여러 지점문화재와 함께 寺址에 遺存하고 있는 幢竿支柱로 原位置에 東西相對하여 서 있다. 支柱는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外面은 兩側 周緣을 따라 넓은 縱文帶를 陽刻으로 刻出하였으며 中央에는 다시 弧形의 縱文帶를 彫飾하였다. 前, 後 兩側面에도 同一하게 周緣에 縱文帶를 陽刻하고 그 中央에 圓條의 縱文線을 彫飾하여 매우 裝飾的인 意匠手法을 보이고 있다.

兩支柱의 頂部는 內面上端에서 外面으로 내려 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外部로 窄겨졌기 때문에 流麗한 弧形을 形成하고 있는바 이러한 圓弧의 頂端처리 手法은 統一期 幢竿支柱頂部에서 많은 類形의 例를 볼 수 있다.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은 上, 下 二個所に 杆溝를 마련하였는데 上部의 內面上段에 長方形의 杆溝一個와 下部 一m 쯤 되는 內面에 方形의 杆孔을 相對하여 施孔해 杆을 끼우도록 하였다.

現在 支柱 주위에는 笠석과 여러개의 長石으로 石壇을 구축하고 있을 뿐 基壇부는 유존치 않고 있다.

兩支柱 사이에 있는 竿臺는 一石으로 되어 方形에 二층基臺를 刻出하고 그위에 圓座를 彫出하였다. 彫出된 圓座는 淺刻의 二段인데 아무런 彫飾이 없고 上段 上面中央에 圓孔이 施孔되어 幢竿의 底面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상태의 당간지주는 이곳에 遺存하는 其他遺物들과 함께 통일신라말기에 造成된 것으로 보며 支柱의 各側面에 彫飾된 縱文帶나 頂部에 加工된 流麗한 技法等은 더욱 이를 뒷받침하며 발달된 형태와 정연하고 장식적인 手法은 더욱 통일신라시대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③ C形(第三型式)

慶州三郎寺址幢竿支柱(寶物一二七號)(圖二〇, 挿圖六)

所在地: 慶州市城乾里

크기: 支柱高 三, 六六m 支柱一邊長 〇, 六二×〇, 四m

材料: 花崗石

現在 民家를 敷地에 遺存하며 兩支柱는 五m의 거리를 두고 서로 外側面이 相對하여 서 있었다. 通例로 당간지주의 相對한 間격은 五〇~七〇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유별나게 五m의 間격을 두고 있고 또 外側面이 相對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 兩支柱中 어느 한 支柱는 原位置에서 移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후에 원위치대로 이

전하여 세웠으며 현재는 양지주가 一〇六cm의 간격을 두고東西로 상대하여 있다. 支柱가 相面하는 內面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으나外面은兩側に 周緣을 따라 縱線文이 陽刻되고 그中央에 縱으로 上, 下에 陵線이 彫飾되었다. 그리고 前後兩側面에는 별다른 彫刻이 없으나 周緣을 따라 輪廓線이 있다.

支柱의 頂部는 外面으로 弧線을 그리며 내려오다가 一段의 屈曲을 이루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屈曲에서 五六cm 밑으로 내려오면 內面을 제외한 前, 後, 外側, 三면에 八七, 三cm 되는 길이가 全面的으로 四, 五cm 정도 낮추어 陰刻되어 들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一三八, 五cm 내려가서 다시 이루어지면서 支柱脚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陰刻된 낮은 部分은 두께가 얇아져서 마치 支柱의 三면을 陰帶로 둘러 장식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陰帶가 이 支柱에서 한 一個所가 아니라 下部와 中間上部 二個所에 나타나 있는 것도 특이한 양식상의 意匠法이다.

이렇게 二個所에 陰帶를 설정한 것은 드문 예이고 장식적인 의장에 세련된 手法를 보이고 있고 造成年代도 앞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杆은 上, 下 二個所에 있는데 上部內面 上端에는 長方形杆溝이고 下部는 小形の 方形杆孔을 施孔하여 杆을 고정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三國史記에 의하면 眞平王一九年(AD 五九七)에 창건하고 통일신라시대인 神文王 때 ⑬ 盛刹을 이루었다고 하므로 이 幢竿支柱로 그 양식과 솜씨상 眞平王 때까지는 앞되어도 AD 七C경인 神文王 때 造成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한다.

高靈池山洞幢竿支柱(寶物五四號)(圖二一)

所在地: 慶北道高靈郡高靈邑池山洞 四의 二

크기: 支柱高三, 一四m 支柱一邊長〇, 五五×〇, 四五m
材料: 花崗石

原位置에 原狀대로 七〇cm의 간격을 두고東西로, 相對하여 서 있다. 相面하는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으나 外面은 兩側隅角을 죽이고

各周緣邊에 幅一四cm의 縱文帶를 양각하였으며 中央에는 약간 넓은 一八cm 폭의 縱文帶를 조각하였는데 다시 그 中心에 縱으로 稜線을 細彫하여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한 意匠을 보이고 있다.

前, 後 兩側面에는 兩支柱 同一하게 폭 九cm ~ 一一cm의 外緣線文을 둘러 下部는 支柱를 따라 垂下하였는데 上部에는 眼象形式의 것이 彫飾되어 있다.

外側面의 上部는 頂端에서 三三cm 즈음 밑에서 부터 一〇四cm 정도까지 陽刻의 廣帶를 刻出し켰으며 그以下로는 下部까지 낮추어서 되어 있다. 그리고 支柱의 頂部는 頂端이 尖形이고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三段의 屈曲은 이루면서 弧線으로 처리하였다.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孔은 二個所에 施孔하였는데 上部는 內面上端에 長方形의 杆溝이고 下部는 地面에서 五五cm 높이에 長方形을 兩支柱 內面에 施孔하여 杆을 끼우도록 하였다. 上下部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며 支柱의 外周와 各面에 조식된 양식 수법과 의장이 화려 단아하여 그 治石의 彫法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인 八C 후반의 佳作으로 생각된다.

佛國寺東便幢竿支柱(圖二二, 插圖七)

所在地: 慶州市進峴洞 佛國寺境內

크기: 支柱高三, 六四m 支柱一邊長 五五×四二cm

材料: 花崗石

現在 佛國寺의 七寶橋南便에 位置한 二基의 幢竿支柱中 東便에 위치한 것으로 六一cm의 간격을 두고東西로 상대하고 있다. 兩支柱의 樣式은 同一하며, 相面하는 內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外側面에는 頂端部에서부터 下部까지 周緣에 縱線文帶를 陽刻하여 刻出し켰으며 또한 前, 後面과 外側面의 兩周緣을 따라 一條의 縱線文帶를 역시 刻出し켜 周緣帶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頂部에서 一三二cm 되는 곳에서 부터 九四cm 정도의 폭으로 上部의 폭 四二cm 보다 일단 낮게 폭 三八cm의 陰帶形으로 폭을 좁여 造成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예는 慶州城乾里三郎寺址幢竿支柱와 高靈池山洞幢竿支柱에서 볼 수 있다.

支柱 上部 頂端에서 外側面으로 흘러 내려진 頂部는 弧線을 이루다가 一段받침을 한 후 外側面과 연결되었으며 또한 支柱의 兩內面에 施孔한 杆孔은 二個所가 있는바 頂端상에 杆孔은 凹字形이고 下端部에 施孔한 杆孔은 長方孔이나 相對한 一柱의 內面杆孔은 方形孔을 하고 있어 同一하지 않다. 治石한 手法이나 樣式과 意匠이 역시 통일신라시대 중기 이전으로 오르지 않은 청초 단아한 당간지주로 생각된다.

④ D形(第四型式)

慶州普門洞短幢竿支柱(圖二三、插圖八)

所在地：慶州市普門洞 七五二一一

크기：支柱高一、四m 支柱一邊長 五六×三二cm

材料：花崗石

現在普門洞 七五二一一의 水踏가운데 六四cm의 간격을 두고 東西로 相對하여 있는 幢竿支柱로 慶州일원과 國內에서는 보기 드문 稀少형태의 당간지주이다.

兩支柱의 樣式과 形態는 同一하며 支柱의 頂部는 完만한 弧線으로 되어 있으며 內外前後面의 隅角은 圓弧로 角을 죽여 부드러운 면을 보이고 있으며 前後面과 外側面의 周緣에는 一條의 縱線文帶로 區別하여 彫飾하였고 內面은 頂端部에서 七二cm 정도에 이르러 一段받침을 한 후 그以下 七〇cm 정도는 상부보다 낮게 하였다. 이것이 外側面에서는 五六cm 정도의 상부가 下部보다 낮게 되고 그以下 八四cm 정도는 반대로 一段높게 側面을 造成한 것이 특이점이다. 그리고 外側面의 五六m 되는 面에 子房을 갖춘 八瓣單葉의 蓮瓣을 兩支柱 同一하게 陽刻으로 彫飾되어 있어 몹시 단정하고 화려하게 造成한 幢竿支柱이나, 幢竿을 고정시키는 杆溝도 兩支柱 內面上端에 U字形의 杆溝一個所를 施孔하였을 뿐 여타의 장식은 없다. 治石한 手法이나 蓮瓣의 양식 등으로 보아 매우 단아하고 앙장스러운 것으로 역시 신라 통일 말기에 속하는 幢竿支柱로 본다.

二、石 橋

三國時代를 거쳐 統一新羅時代까지 石橋로서 遺存하여 오는 것은 現存하는 佛國寺 蓮華橋、七寶橋、白雲橋、靑雲橋와 遺址와 遺橋로서의 것은 月淨橋址와 日精橋址 뿐이 아닌가 한다.

다만 記錄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다면 新羅가 橋樑을 建設築造하는 記錄은 西紀五世紀初가 되어야 보이며 이것도 新羅領土內에서인지 아니면 高句麗領土內에서 高句麗의 要請에 의해 建設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實聖王二年(AD 四一三)에 平壤州 大橋를 새로 세웠다는 三國史記의 記錄을 시초로 하여 그 數量이 極限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으며 이를 열거하여 보면 平壤州 大橋、楡橋、金橋、月淨春陽二橋、宮南樓橋、大橋、孝不孝橋、掘淵川橋(一名廣濟院橋)、神元橋、南亭橋、等으로 보이고 있으나 現在까지 實際 橋樑의 遺構와 完存하게 남아 있는 石橋로는 慶州市內 月城 蛟川上의 月淨橋址와 日精橋(春陽橋)의 殘存한 유구와 統一新羅 景德王 때 建設한 佛國寺 蓮華、七寶橋 및 白雲、靑雲橋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後代의 高麗王朝과 朝鮮王朝 때에 이르러서는 穹窿形의 洪예를 갖추거나 아니면 石柱에 난간과 板石을 이용한 一般石橋가 전국 각지에 상당수 남아 있으나 통일기의 석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일하게 불국사의 석교와 일정 일정 양교의 유구와 孝不孝橋의 유구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남아 있는 石橋의 架構手法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불국사의 兩二橋 등은 穹窿形의 洪예를 갖추고 欄干을 갖춘 中國의 卷橋形式을 받아들여 架構築橋한 것으로 보나 日精橋와 月淨橋(月精橋)의 形式은 역시 中國의 橋樑에서 보이는 石柱를 利用하고 板石과 欄干을 갖추었던 石橋形式을 본받아 築橋한 것이라고 본다.

1. 記錄에 의한 橋樑을 보면

① 平壤州 大橋 — 三國史記에 實聖尼師今 二年(AD 四一三) 平壤州 大橋를 新成

② 金橋 — 三國遺事に 金橋는 西川の 다리를 이룬다 訛傳하여 부르는 松橋라 부른다.

③ 鬼橋 — 三國遺事に 新羅二五代 眞智王 때 神元寺 北渠에 桃花娘과 王과의 魂交로 탄생하였다는 鼻荊郎이 眞平王의 命을 받아 도깨비의 무리를 부려서 하루밤새 架設하였는 다리이며 現在 없음.

④ 楡橋 — 元曉와 瑤石공주에 관한 眞실로서 南山新城으로 통하는 중요한 다리였다 한다.

⑤ 宮南樓橋 — 三國史記에 元聖王一四年(AD 七九八)春三月 宮南樓橋가 불났다는 記錄이 보이며 이것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木橋로서 비를 맞지않게 建物을 교각위에 지었던것으로 보이는 木橋라는 점이다.

⑥ 大橋 — 東國輿地勝覽과 東京雜記에 蚊川上에 있었다고 되어있다.

⑦ 掘淵川橋(일명 廣濟院橋) — 東國輿地勝覽에 府北二〇里에 있었으며 一八四五年 홍수로 강물의 水路가 바뀌어 府北一五里로 옮겼다는 東京雜記의 기록으로 보아 近世까지 遺存하였음을 짐작케한다.

⑧ 神元橋 — 東國輿地勝覽에 府西一〇里에 있었다하며 추측컨대 이 다리는 神元寺附近의 鬼橋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⑨ 南亭橋 — 東京雜記에 府南五里에 있었다고하며 蚊川上에 架設하였던 것으로 본다.

⑩ 月淨, 日精橋 — 三國史記에 新羅景德王 一九年(AD 七六〇)에 宮南蚊川上에 月淨, 春陽(日精) 兩橋를 架設하였다고 되어 있고 東京雜記에는 日精橋를 일명 春陽橋라 하여 府東南 蚊川上에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月精橋를 高麗忠烈王六年(AD 一一八〇)에 重修하였던 일이 있다고 되어 있고 現在도 月淨, 日精 兩橋의 橋脚地臺遺構가 河上에 完연히 남아 있다.

⑪ 孝不孝橋 — 東國輿地勝覽에 府東六里에 있었다고 하며 흥미 있는 眞실이 없혀 있는 다리이다.

이것들 以外에 佛國寺의 靑雲白雲, 蓮花七寶橋 兩橋를 합친다면 그

數는 不過 一三基에서 一四基정도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石橋들이 古新羅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末期까지 自體에서의 石橋築造를 獨創的으로 造成한 것도 있겠으나 한편 統一新羅時代に 들어 와서는 中國의 영향에 의해 橋樑築造의 方法을 받아 들여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켜 造成한 것으로 본다.

二, 中國의 橋樑種類를 보면

飛橋(插圖九·一〇) 索橋, 竹索橋(插圖一一) 吊橋(插圖一二) 木橋(插圖一三) 跳墩子(일명 징검다리, 插圖一四) 廊橋(插圖一五) 木筏, 竹筏橋(插圖一六), 平橋(插圖一七), 曲橋(插圖一八), 浮橋(插圖一九) 石橋(欄干과 橋脚石柱가 있음, 插圖二〇) 弧狀券橋(插圖二一) 淸式石橋(插圖二二) 券橋(插圖二三)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중 券橋에서 가장 아름답고 代表的인 것은 中國趙縣安濟橋를 들수 있고 欄干과 石柱를 갖춘 石橋로서 가장 代表될만한 것은 陝西省西安에 있는 灞河橋를 들수가 있다.

安濟橋 — 趙縣의 南쪽 洩水위에 세워진 다리로 隋의 大業年間(AD 六一八)에 李春이라는 著名한 技術者에 의해 造成되었으며 당시 趙州와 南北交通의 幹線이 되는 다리로 ⑮ 全長이 石橋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圓弧狀의 大형 아치로 구성되고 끝과 끝에는 大형 아치위에 작은 穹窿形의 龕을 갖춘 소형아치를 二개씩 또 다시 배치하여 荷重을 최대로 感受하여 그 架設技法이나 아름다운 樣式을 더 일층 빛나게 한 代表的 石橋이다. (插圖二三)

灞河橋 — 帽式橋(梁式橋)의 一種으로서 一般石橋形式으로 全長 三五四m나 되며 이 石橋에서는 ⑯ 河上에 地丁등을 박고 그위에 橋脚인 石軸은 올려 놓는 다음 橋板인 石製板을 깔고 그위에 다시 童子柱와 欄干 石을 구비한 石橋이다. (插圖二四)

三, 統一新羅時代代表的 石橋

① 佛國寺蓮花橋七寶橋(國寶二二號)(圖二四)

前面的 大石壇 東側の 靑雲、白雲橋의 西쪽에 위치한 石橋로서 架構 築橋 手法는 靑雲、白雲橋와 거의 같다. 아래쪽의 蓮花橋는 十段의 층 계를 만들었으며 계단식 登桁으로 左右로 구분하였다. 登桁의 상면은 모를 깎아 약간씩 경사를 이루었고 欄干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石柱 즉 欄干童子柱만이 남아 있다.

蓮花橋에는 각 층계에 연관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리 밑으로는 弧形으로 加工한 石材로서 穹窿形 통로를 만들었다. 七寶橋는 八단의 층계로 이루어졌고 한장의 장대석으로 된 登桁으로 左右로 구분되어 있으나 연화교와 같이 다른 장식은 없다. 다만 石柱가 上下에 남아 있어 석란간 설치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蓮花橋高 二、三一 m、幅 一、四八 m

七寶橋高 四、〇六 m、幅 一、一六 m

② 佛國寺靑雲橋白雲橋(國寶二三號)(圖二五)

佛國寺石壇前面 二個所에 石梯를 가설하여 堂塔에 오르도록 하였는데 東쪽에 있는 石梯가 이 靑雲橋白雲橋이며 아래쪽 것이 靑雲橋、위쪽 것이 白雲橋이다.

靑雲橋는 十八계단의 층계로 되었고 중앙에 登桁을 두어 左右로 區分하게 하였으며 登桁에는 中央에 稜線을 두었고 左右端의 登桁에는 原來 石欄干이 架設되어 있었던 모양이나 現在는 上下에 欄干의 石柱만이 殘存하여 있다.

石橋 밑에는 작은 石材들을 架構하여 穹窿形을 만들어 通行이 可能하게 하였다. 또한 그 上部兩端에는 登桁까지 석탑의 갑석과 같은 갑석이 내밀려 있는데 이 甲石의 隅角反轉手法는 多寶塔이나 釋迦塔의 反轉手法와 同一하다. 靑雲橋 위의 白雲橋는 一六단으로서 그 構成樣式은 靑雲橋보다 규모가 약간 작으나 같은 樣式이다. 또 이 白雲橋 밑에도 작은 穹窿形通路를 만들었으며 그 兩側에서 길게 앞으로 뻗은 압고 넓은 甲石의 手法도 靑雲橋에서와 같으며 靑雲、白雲橋의 경사는 四十五度이고 石梯역시 細心한 設計와 注意로서 이루어진 點이 역력히 보이고 있다.

또한 良質의 花崗石을 사용하여 治石治材한 手法도 당대를 代表할만큼 精巧하며 西쪽의 石梯나 其他 堂塔과의 調和는 勿論이고 蓮華七寶橋와 的 調和도 優麗하게 나타내는 兩石橋라 할 수 있고 建立年代 또한 佛國寺 創建과 동시에 發願된 신라경덕왕때 金大城의 作品으로 八세기 중엽의 대표적 석교로 본다.

靑雲橋高 三、八二 m 幅 五、一四 m

白雲橋高 三、一五 m 幅 五、〇九 m

③ 月精橋와 日精橋

現在 慶州市校洞의 司馬所 앞의 南川河床에 四個의 橋脚址가 남아 있어 이를 一九七五年 四月 一五日 부터 四月 二五일까지 당시 慶州史蹟管理 事務所 所長 鄭在鏞氏(現管理局企劃官)가 調査한 內容을 인용하면 四個의 橋脚을 一、二 m 六〇 cm 씩의 간격으로 ⑰ 세워진 다리이며 다리의 全長은 六三 m(插圖二五)가량 긴 다리였고 교각과 교각 사이는 石柱 혹은 木柱를 四個씩 모아 세운 교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一、二 m 六〇 cm 나 되는 교각과 교각의 사이에 石材로 보를 걸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木材를 걸어서 두꺼운 板材나 板石을 깔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朝鮮王朝時代의 石橋인 서울 水標橋는 橋脚의 간격이 三 m 내외이고 살곳이 다리는 三 m 八〇 cm 정도로 石製의 橋脚上에 石製보를 걸치고 全部 板石材로 橋板을 하였으나 그러나 月精橋의 橋脚은 石柱로 추정하면서도 걸치는 보와 기타 部材는 石材와 木材를 混用하여 造成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히 注目된다.

현재 경주국립박물관 부지 서편 南川에 表出되어 있는 축대를 月精橋의 橋岸 石築臺로 보고 있으나 이것 역시 확실치 않으며 또한 月精橋나 日精橋의 橋岸石築이 長大石 築臺를 이용하여 쌓은 手法으로 이와 같은 手法은 新羅에서는 八 C가 되어야 보이는바 이로서 이들 兩橋의 造成年代도 後代에 여러번 重修하여 造成할 때 長大石을 利用한 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그리고 月精橋와는 달리 日精橋는 石臺만 남아 있을 뿐 河床에 殘存한 遺構가 확실치 않아 과거의 橋脚形態를 파악 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三、結 言

一、石製幢竿支柱

앞에서 소개한 幢竿支柱 二三基를 大觀하여 보면 역시 統一新羅初期에서부터 末期까지 主로된 樣式과 型式을 갖추고 主流를 이루었던 幢竿支柱는 第一型式인 A型이 一五基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流行하였던 型式은 第二型式인 B型이 四基이고 第三型式인 C型이 B型다음으로 流行傳來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四가지 型式中 幢竿支柱로서의 화려함과 淸雅한 樣式을 갖춘 것은 역시 第二型式인 B型和 第三型式인 C型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런데 이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各古代寺刹이나 寺址에 빠짐없이 당간지주를 寺域에 造成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一說에서는 이 幢竿支柱를 佛菩薩의 위신과 功德을 표시하고 아울러 辟邪의 目的에 幢이라는 것만을 달기 위한 것대 즉 幢竿을 石製支柱로 하여 세웠다는 설이 있고 또한 다른 一說에는 幢竿을¹⁸⁾ 세우는 理由가 地理讖緯說과 관계가 있고 또한 이 幢竿은 佛敎由來와 관계가 있어 함께 印度中國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說과¹⁹⁾ 그리고 佛敎와 讖緯說이 交涉하여 佛力의 가호로 讖緯說의 山川陰陽說과 합쳐 「萬民豐樂國運隆昌」을 도모하는 뜻에서 寺域內에 세웠다 하며 더욱 나가 陰陽五行風水說까지도 이 當간지주 조성에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說이 있다.²⁰⁾ 그리고 印度에서 시작돼 中國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고유한 민족신앙과 습합되어 특이하게 진보 발달 되었다고 보는 說도 있다.²¹⁾ 이런 점으로 볼 때 본인은 印度에서 中國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는 說에는 동감이 가나 中國에 남아 있는 當간지주는 幡竿類라 하여 蘇州郊外用直鎮의 保聖寺에 있는 大中祥符六年(AD 1113)의 幡竿類 卽 幢竿支柱 뿐이며 좀더 서대가 올라가서는 東北鄉間門前에 세워져 있는 神杆(插圖二六) 등에서 부

터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된다. 이와 같은 神杆는 魏志東夷傳三國誌三韓條에서 나타나는 蘇塗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蘇塗(돛대)는 三韓時代서부터 國邑에는 天神을 주재하는 大巫一人이 있어 이것을 天君이라 하고 또 諸國의 邑境界 또는 洞口에 大木을 세우고 그것을 蘇塗라 하여 經계 수호신에 표시로도 하였고 이 蘇塗에는 鈴과 鼓 등을 달고 무당에 의해 성대한 굿을 행하였다. 하며 또한 災難과 福을 위한 部族의 大祭禮를 행하고 이 蘇塗를 神聖視 視하며 이 蘇塗가 서 있는 區域에 亡命逃入한 外來者는 追放하거나 들러 보내지 않는 뜻이 있다 하며 또한 하늘에서 降神하는 處지를 길로 승배 하였다는 뜻도 있다²²⁾ 한다 반면에 三國史記 祭祀條에 의하면 新羅五岳에는 各己山神이 있었고 이 山神들을 造像하여 모시는 祠堂이 있었으며 新羅五岳에 對한 祭祠는 곧 山神들에 對한 祭祠였다고 한다. 그리고 義湘이 佛敎를 傳敎케 했다는 一〇個寺刹이 또한 이 五岳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²⁴⁾ 또한 新羅時代 三山五岳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 자리에 사찰이 들어섰다고²⁵⁾ 하는 것은 古代社會에서 부터오는 古代民俗信仰의 聖域과 佛敎가 습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古代信仰의 聖域에 세워져 있던 神杆 卽 蘇塗가 佛敎와 융합하면서 현재까지 유존하여 오는 當간지주로 변모되어 蘇塗의 뜻을 포함한 것이라 본인은 생각되며 그렇게 보는 바이다.

二、石 橋

石橋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佛國寺蓮花橋, 七寶橋, 白雲橋, 靑雲橋 등은 穹窿型의 아치와 虹蜺를 사용한 方法은 中國의 石橋에서 사용하였던 方法으로 橋樑의 荷重은 四方으로 分散시키는 眞券(插圖二五) 및 桶券法(插圖二五)에 의한 穹窿型과 虹蜺法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그 위에 中國 趙縣의 瀾河橋 또는 瀾橋에서 보이는 石欄干을 받아들여 특 징 있는 石橋로 發展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月精橋의 遺構를 보면 河床에 地丁을 깔고 그 위에 橋脚地臺石을 설정하고 地臺石 위로 橋脚 卽 石

柱를 설정한후 石製나 木材의 보를 얹어 교량을 잇는 板石이나 다른 어떤 자료를 사용한후 欄干을 구비한 전형적인 平石橋나 木材橋樑을 이룩한 듯하다. 특히 현재도 우수하고 아름다운 佛國寺의 蓮花七寶橋와 靑雲白雲橋의 兩橋를 경사 四五度로 된 것이 아니고 가정한 一直線上의 一般平石橋로 놓여 있다면 隋代에 建設된 安濟橋와 버금가는 가장 아름답고 고도의 技術을 구비하여 建設한 石橋로서 統一新羅時代를 代表하고 도 남는 一般平石橋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상의 여러가지 石橋築造型式과 技術이 後代의 고려왕조나 조선왕조의 石橋築造에 많은 영향과 기술을 전래 하였다고 본다.

[註]

- ①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 神文王五年四月望德寺創建
- ②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太宗武烈王條 六年創漢山州莊義寺
- ③ 前揭書 第七 文武王條 王十六年春三月高僧義相奉旨創浮石寺
- ④ 文化財管理局刊 文化財大觀(國寶 寶物篇) 石造物 望德寺址 幢竿支柱 解說 文 參照
- ⑤ 前揭書 參照
- ⑥ 前揭書 解說文中 銘文參照
- ⑦ 前揭書 參照
- ⑧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七, 創造來宮, 始定內外 諸門額號, 四天王寺成
- ⑨ 文化財管理局刊 文化財大觀(國寶, 寶物篇) 石造物 解說文과 慶川市刊 慶州市誌 708 page 普門寺址編의 統一後 전성기에 創建된 寺刹로 보며 이 寺址에서 「普門」이라는 銘文瓦當이 出土되어 普門寺址임이 判明됨.
- ⑩ 慶州市刊 慶州市誌 679 page 南澗寺址는 釋惠通의 蹟이 있었다는 銀川洞 鎭의 南澗寺는 지금의 塔洞南澗部落의 幢竿支柱 및 古井과 礎石들이 있다. 그 創始는 未詳하나 三國遺事에 元和(唐憲宗年號 新羅哀莊王七年 AD 806年 憲德王十二年까지 使用한 年號)중 南澗寺 沙門一念이 厭觸의 香墳禮佛結社 文을 撰하였다 하였으니 憲德王 以前에 創建한 것으로 본다.
- ⑪ 文化財管理局刊, 文化財大觀(國寶, 寶物篇) 石造物編 解說文參照
- ⑫ 前揭書, 法印國師寶乘塔 및 塔碑解說文參照
- ⑬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平王條에 王十九年 三郎寺成
- ⑭ 劉致平著, 建築工程出版社刊 一九五九年 中國建築類型及結構 第二章 單座

建築 五、橋 參照

- ⑮ 中國工業出版社刊, 建築知識 一九七五年 七月號 中國建築의 歷史 146 page~147 page 參照
- ⑯ 前揭書 一九七七年 一月號 中國建築의 歷史 140 page~141 page
- ⑰ 文化財管理局刊, 文化財誌 九號 74 page~89 page 月精橋調査記 參照
- ⑱ 金元龍著, 汎文社刊, 韓國美術史 統一新羅編 參照
- ⑲ 葛城末治著, 「朝鮮金石巧」中 「朝鮮의 幢及び幢竿に就いて」
- ⑳ 前揭書 參照
- ㉑ 前揭書 參照
- ㉒ 竹島卓一著, 中央公論美術出版社刊 一九七〇 營造法式의 研究(一)의 第二節 幢竿頰 參照
- ㉓ 孫晉泰著, 乙酉文化社刊, 韓國民族史概論 75 page 參照
- ㉔ 李基白著, 一潮閣刊 一九七四,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中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 ㉕ 李基白著, 韓國佛教研究院刊 一九七八, 新羅時代의 國家佛教와 儒敎中에서 「三國時代佛敎受容과 그 社會的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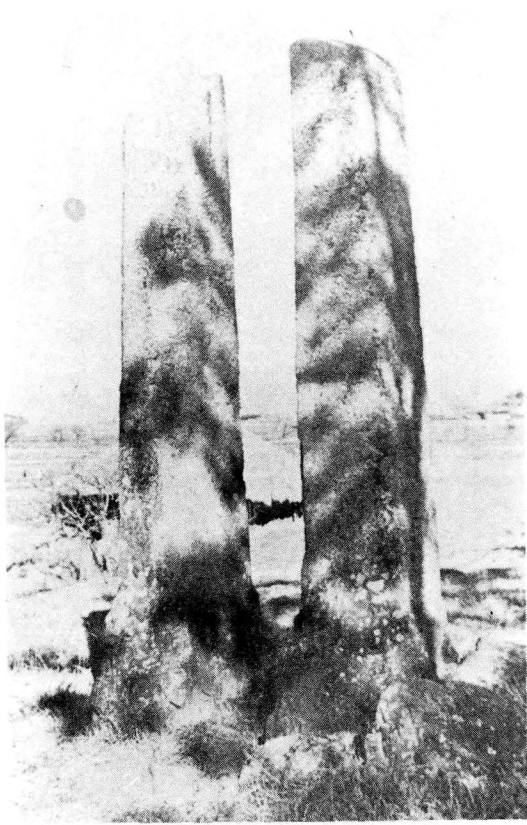


圖1) 望德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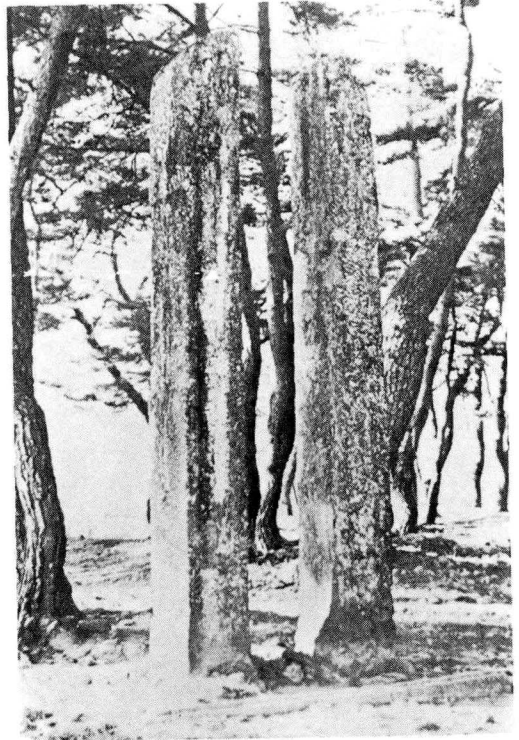


圖2) 宿水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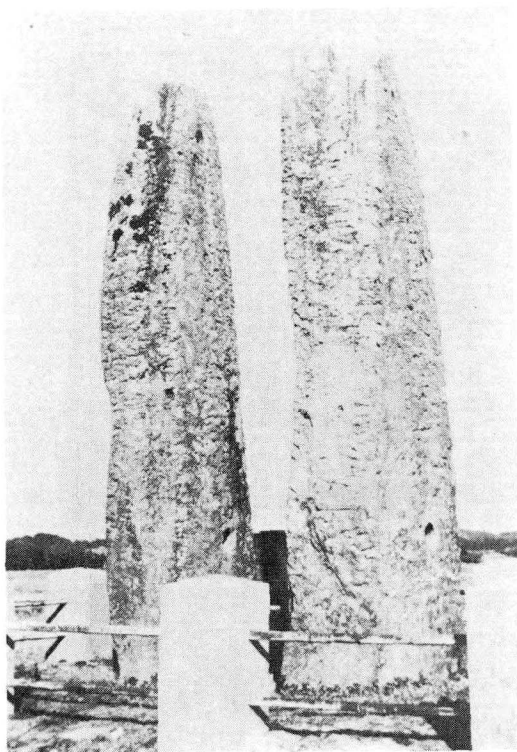


圖3) 掘山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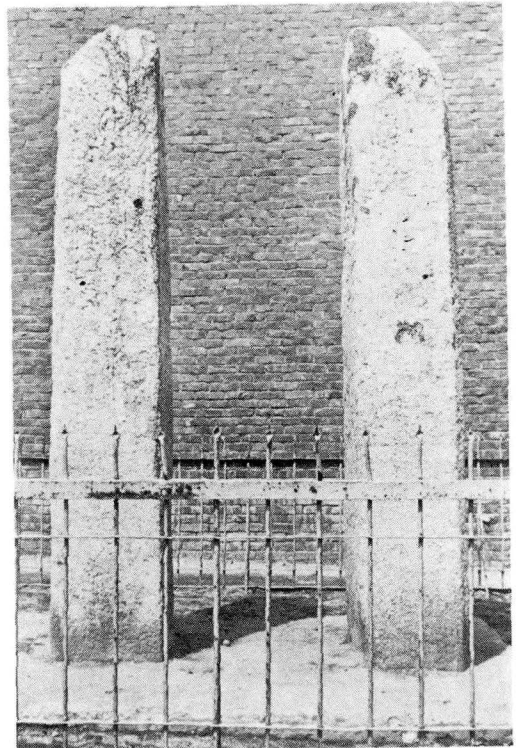


圖4) 莊義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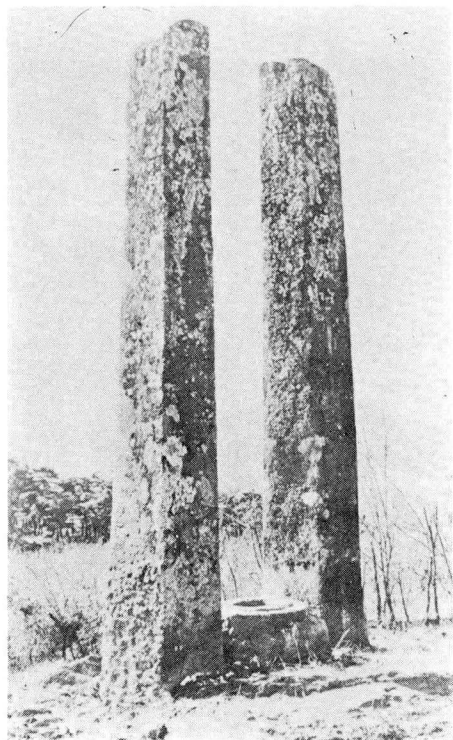


圖5) 浮石寺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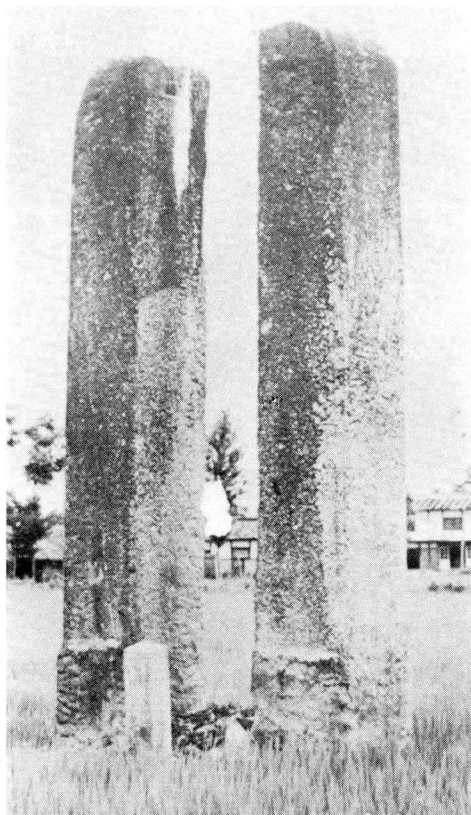


圖6) 江陵大昌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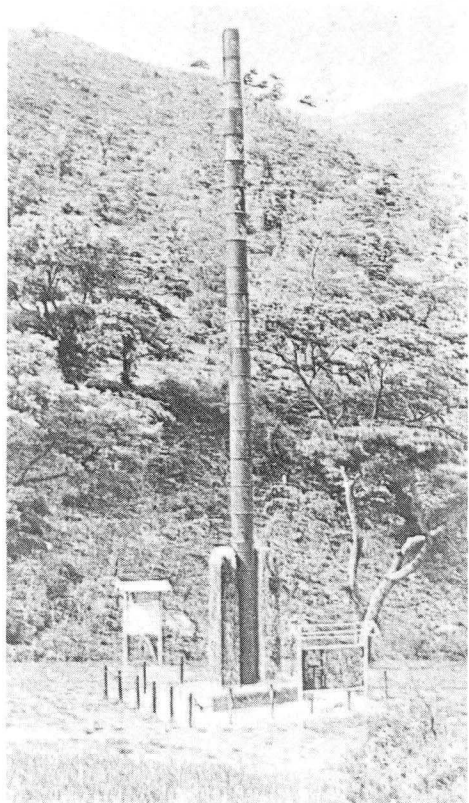


圖7) 甲寺鉄幢竿與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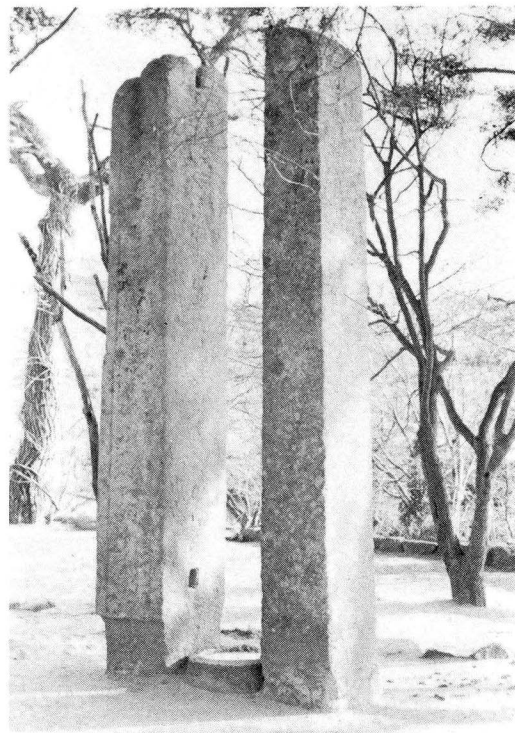


圖8) 佛國寺 西便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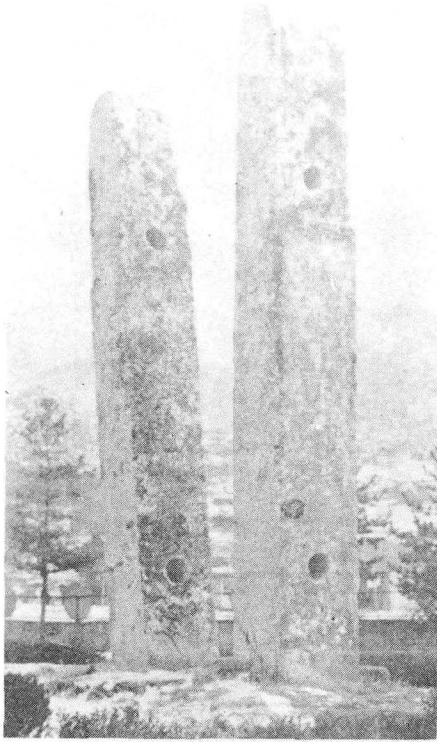


圖9) 中初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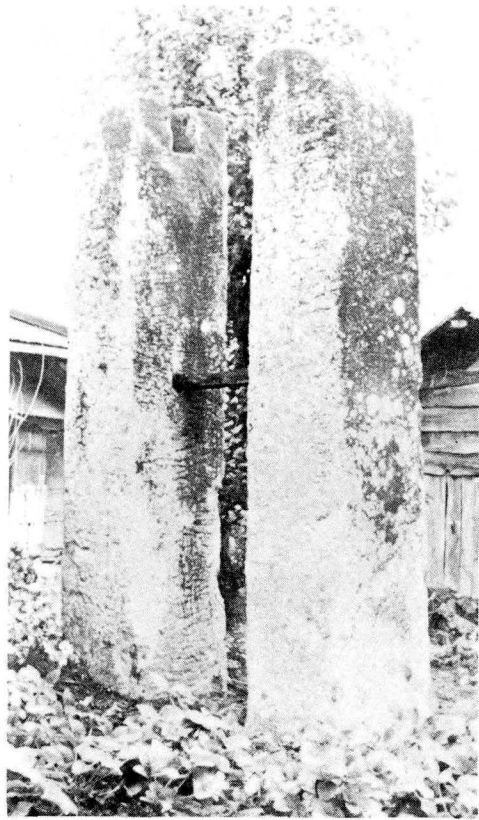


圖10) 江陵水門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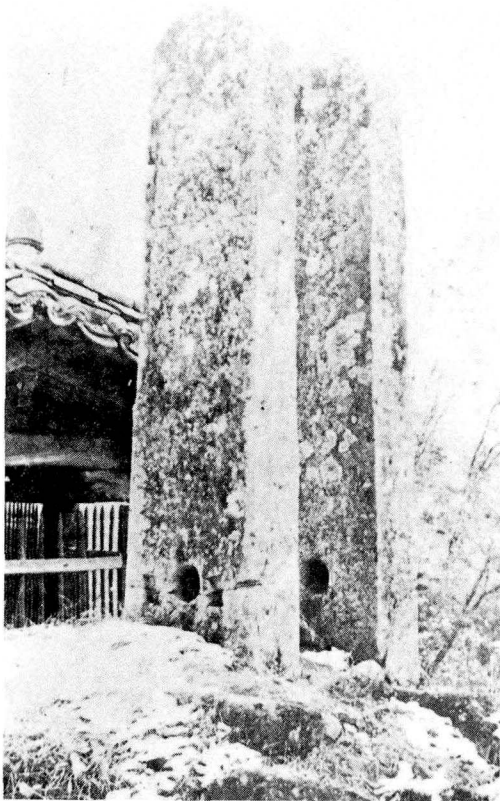


圖11) 桐華寺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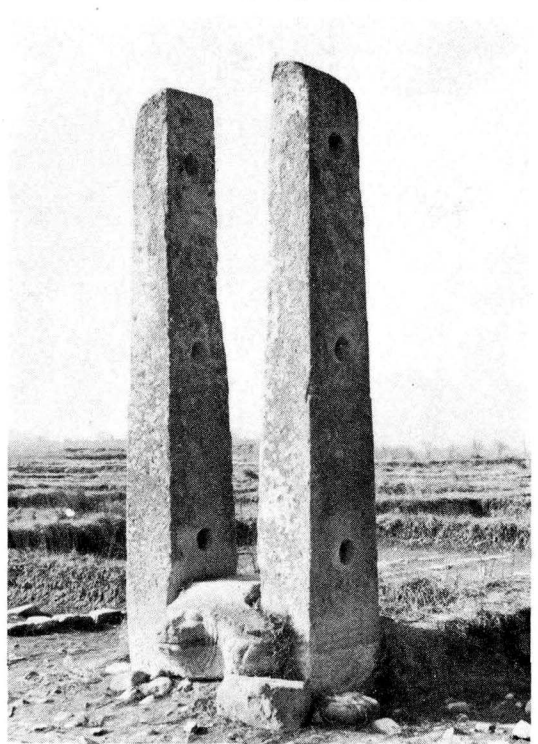


圖12) 慶洲芬皇寺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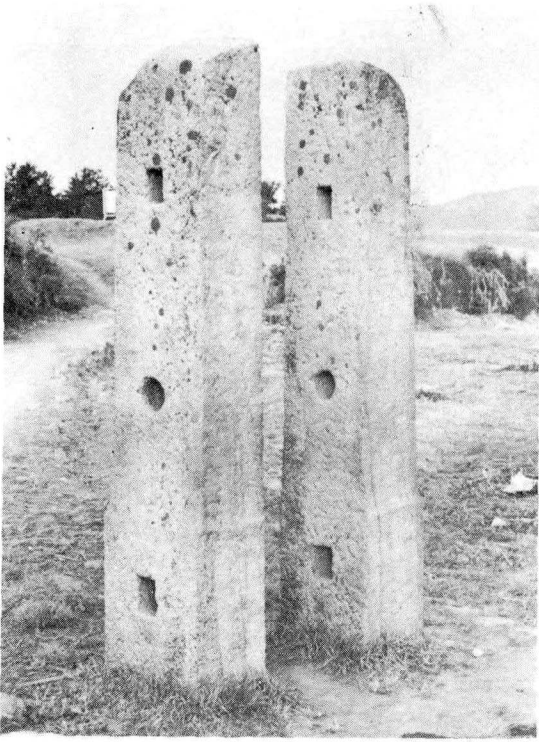


圖13) 慶卅 四天王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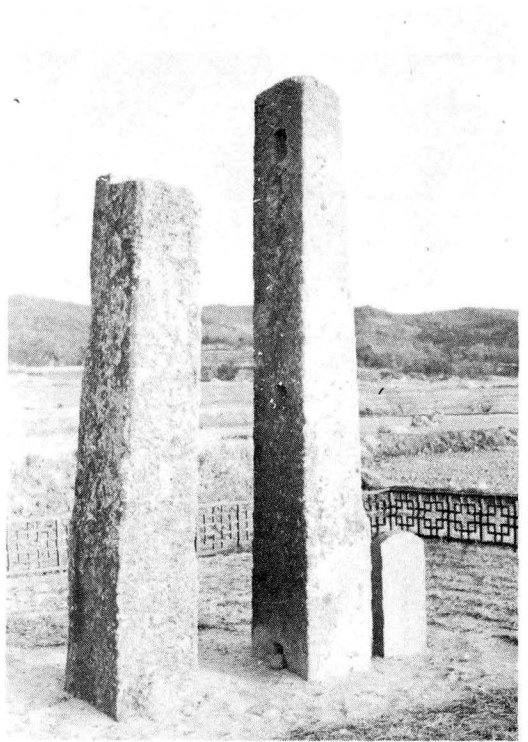


圖14) 慶卅 普門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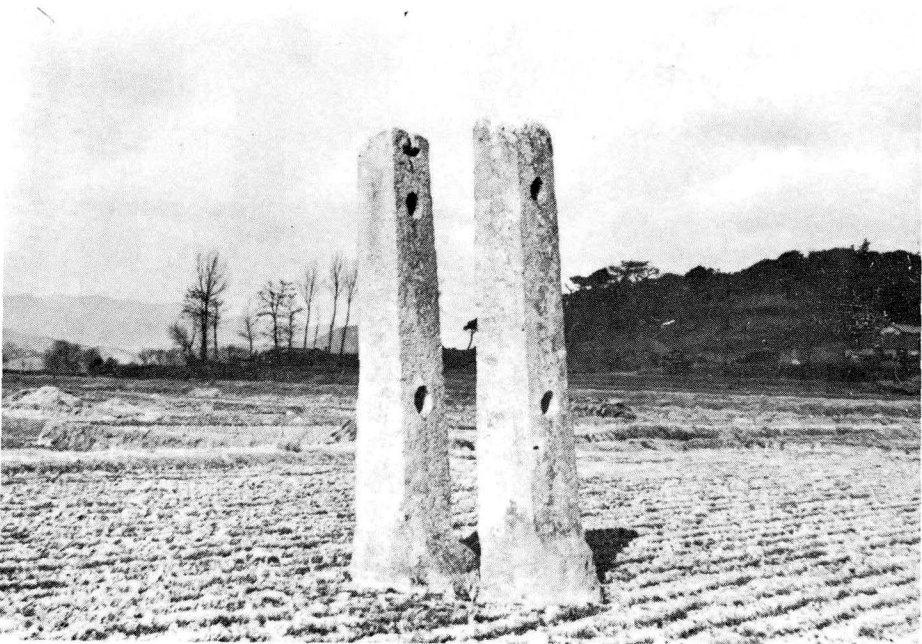


圖15) 慶卅 南澗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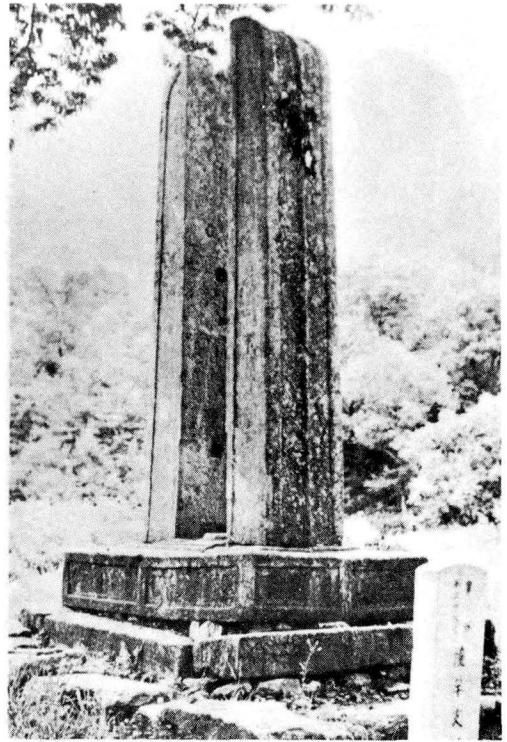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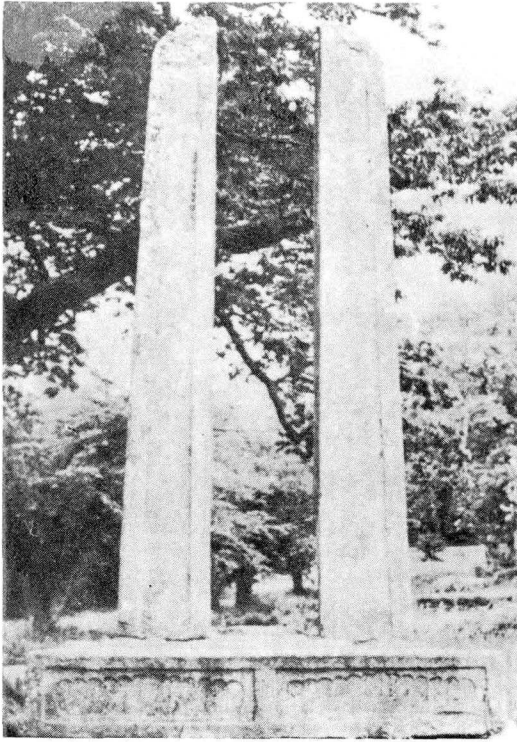


圖16) 金山寺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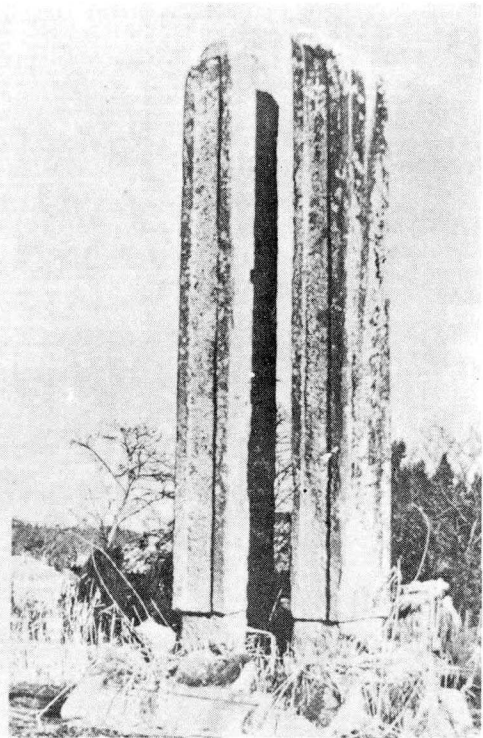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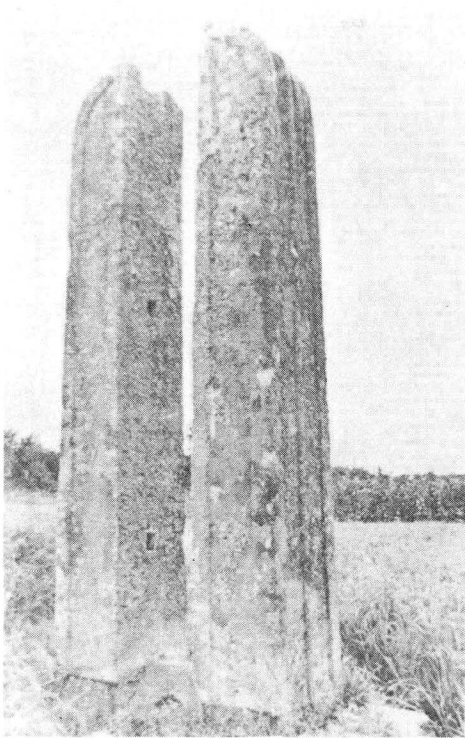


圖17) 彌勒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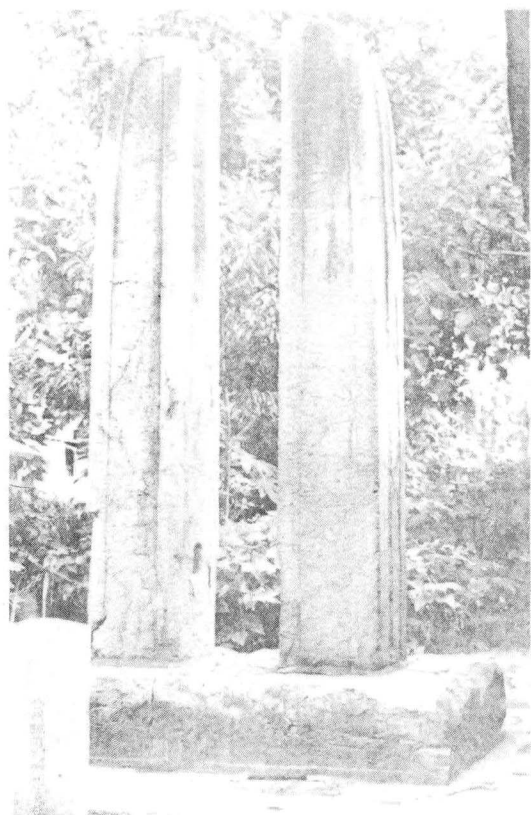


圖18) 公卅班竹洞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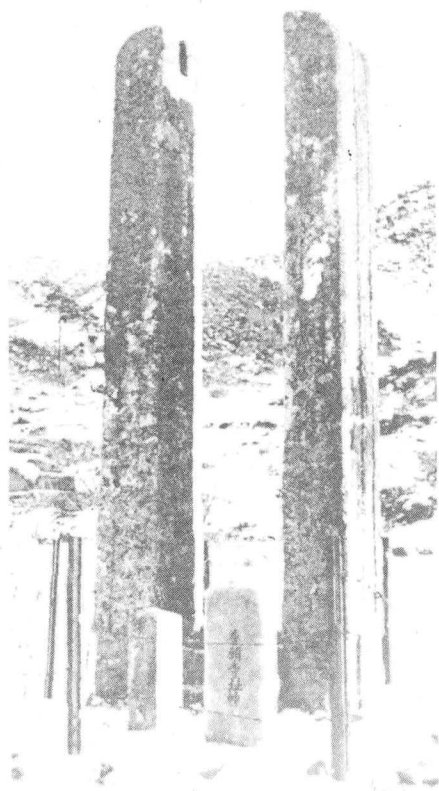


圖19) 普願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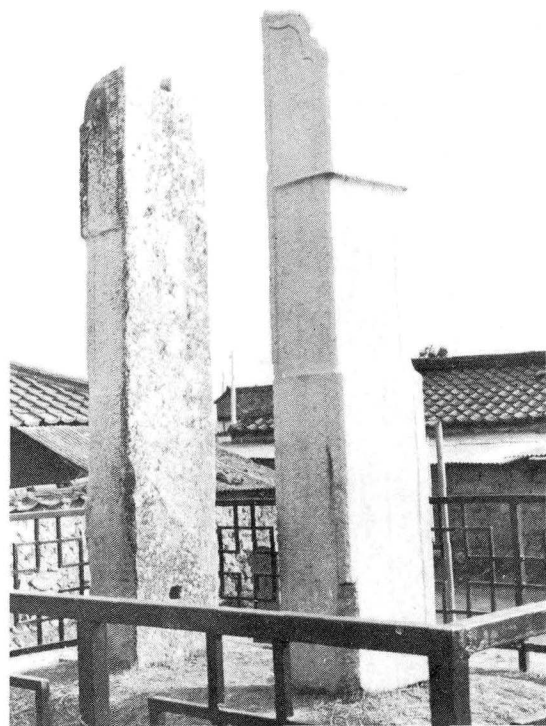


圖20) 慶卅 三即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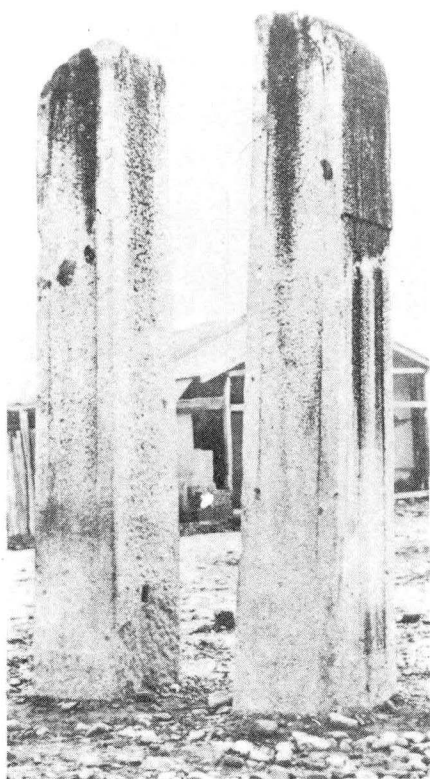


圖21) 高靈池山洞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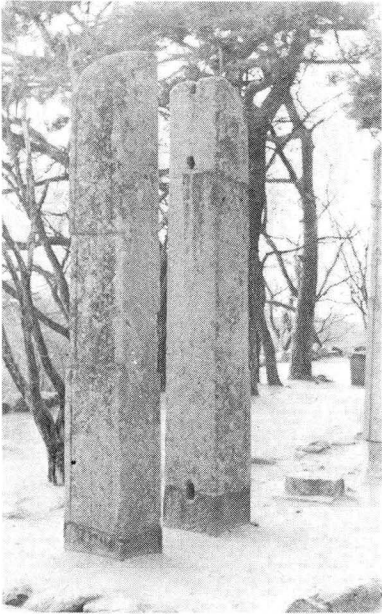


圖22) 佛國寺 東便 幢竿支柱



圖23) 慶州 普門里 短幢竿支柱



圖24) 佛國寺 前面 全景



圖25) 청운교 · 백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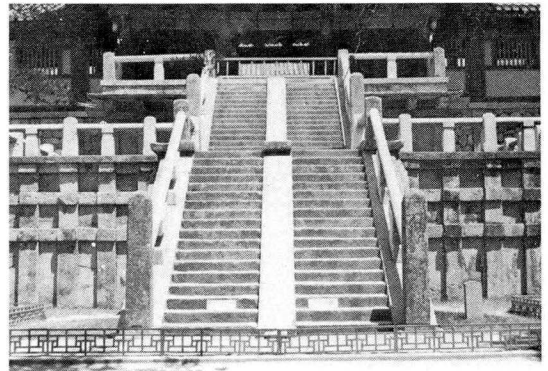


圖26) 청운교 · 백운교 · defort



圖27) 일정교 원경

圖28) 일정교 원경



圖29) 일정교 남편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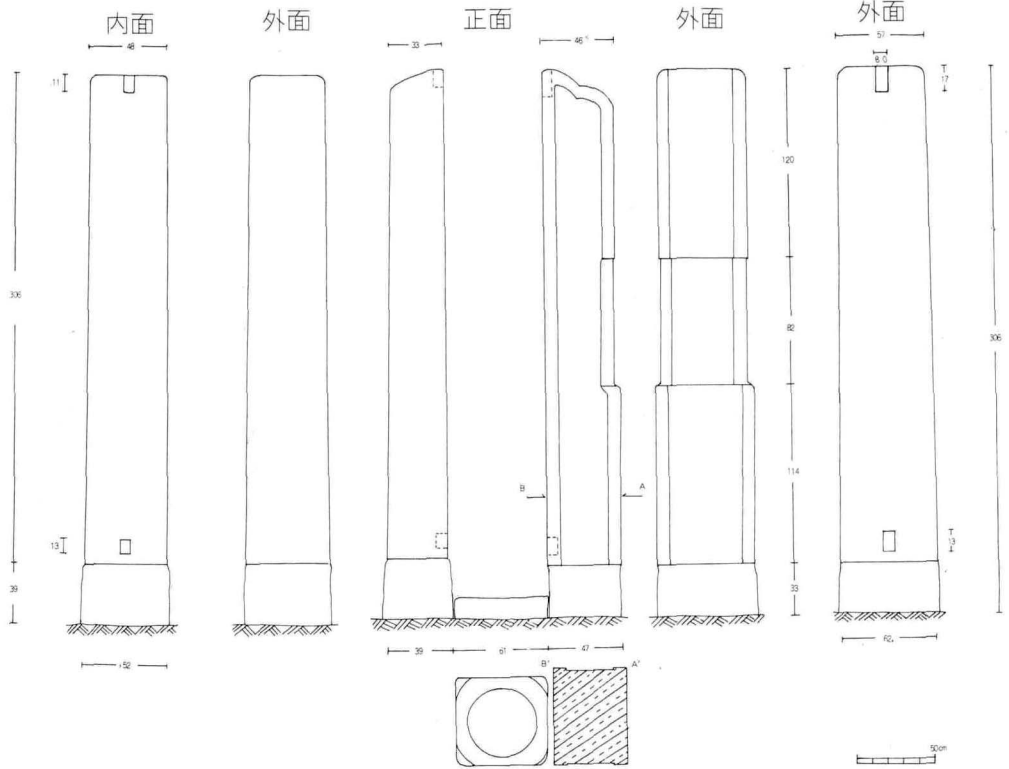


圖30) 孝不孝橋 원경



圖31) 孝不孝橋 石材 細部

挿圖 1) 佛國寺 幢竿支柱 (西便)



挿圖 2) 芬皇寺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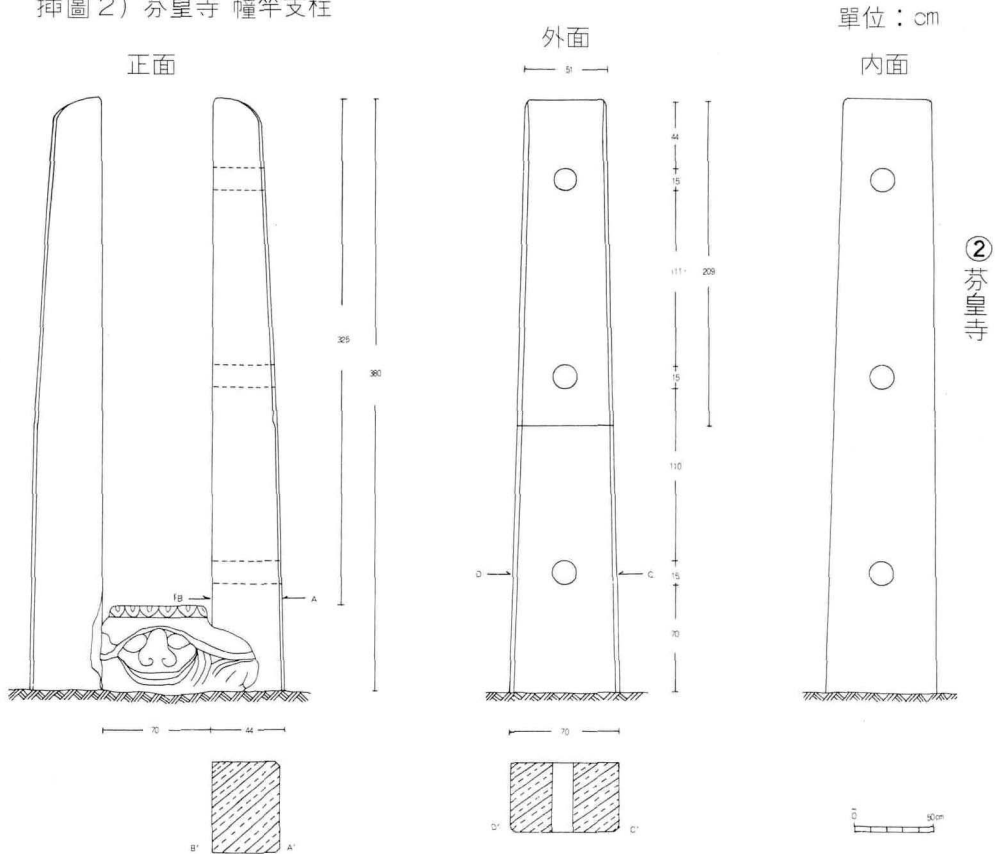


插圖 3) 四天王寺址 幢竿支柱

單位：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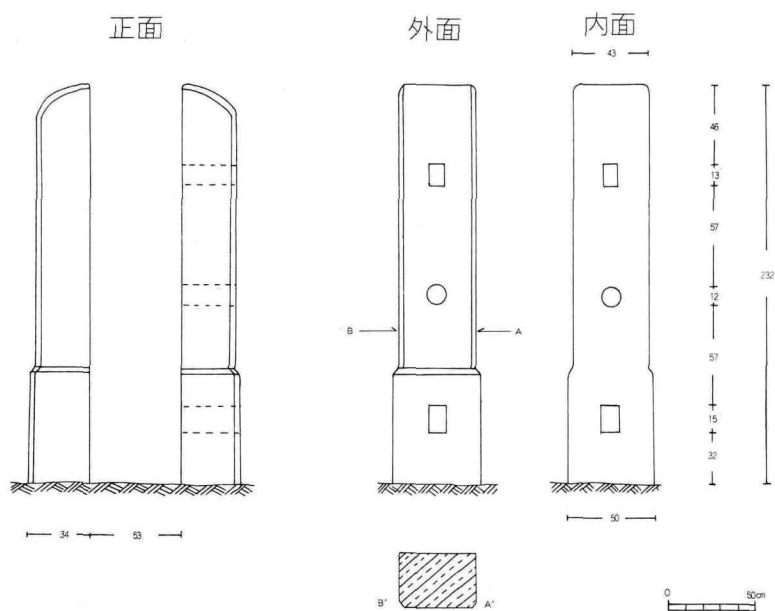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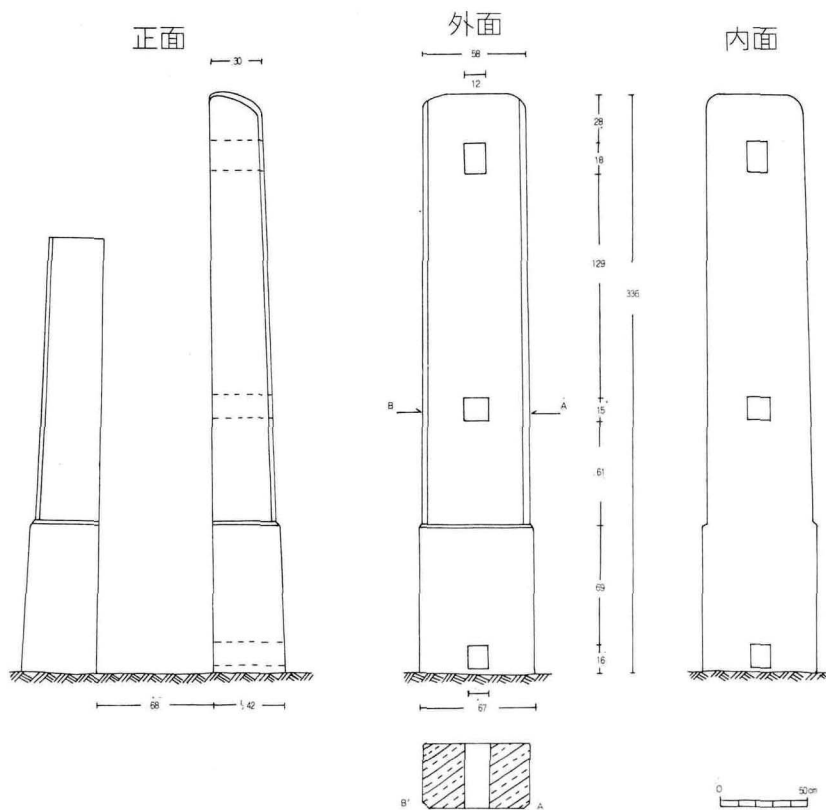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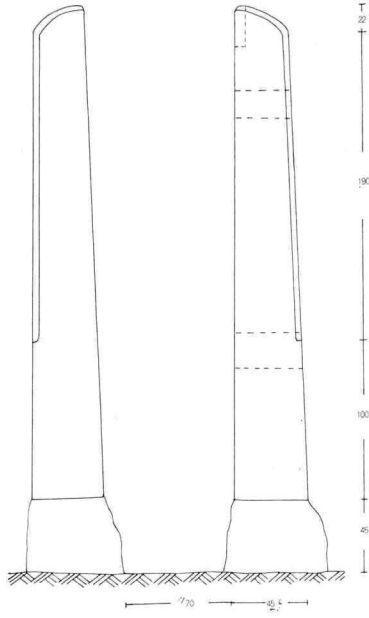


插圖 4) 普門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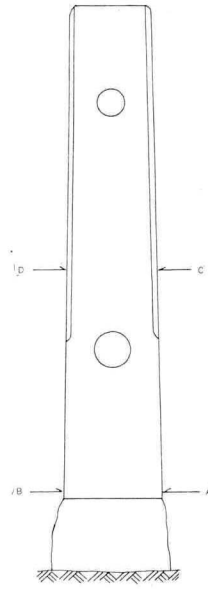
單位：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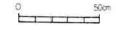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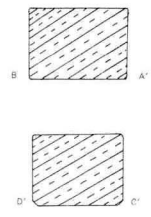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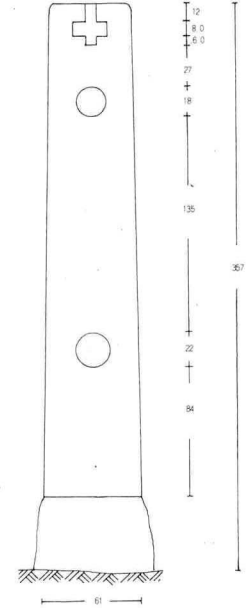
挿圖 5) 南澗寺址 幢竿支柱
正面



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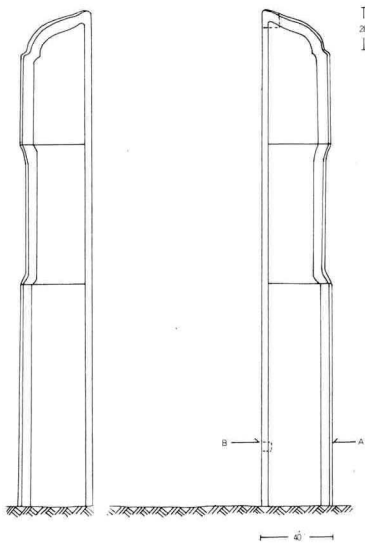


内面 單位：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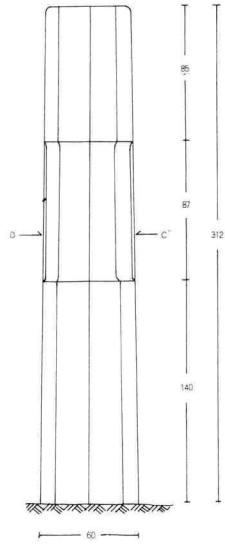


挿圖 6) 三郎寺址 幢竿支柱

正面



外面



單位：cm

内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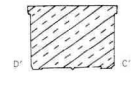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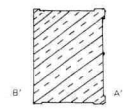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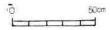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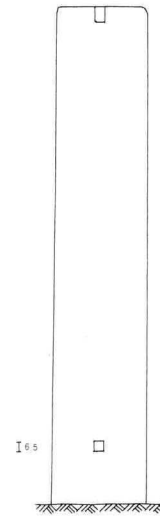


插圖 7) 佛國寺 幢竿支柱(東便)

單位：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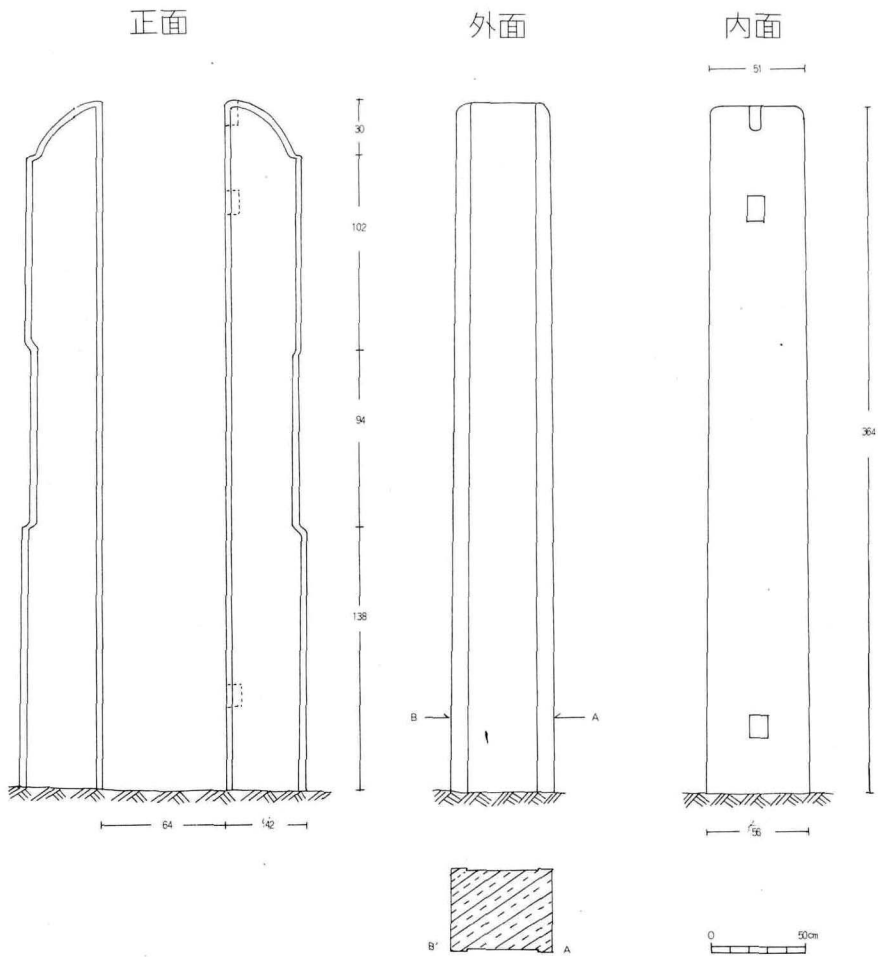


插圖 8) 普門洞 幢竿支柱

單位：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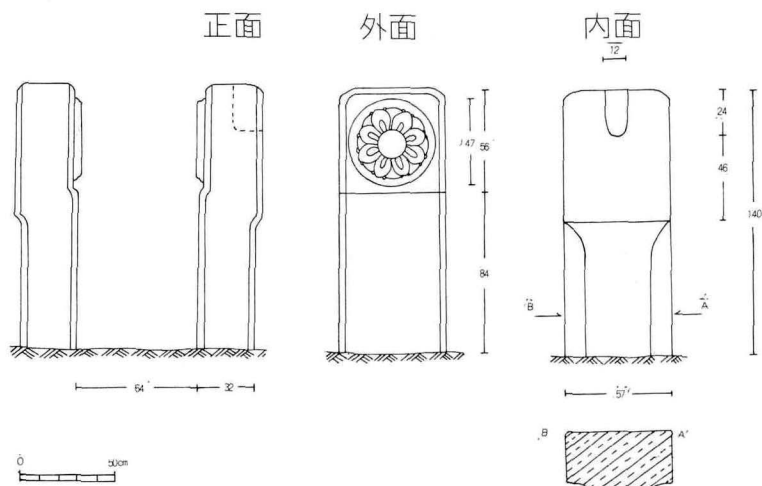


插圖 9) 飛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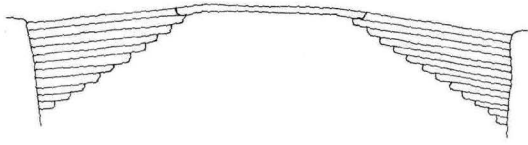


插圖 10) 飛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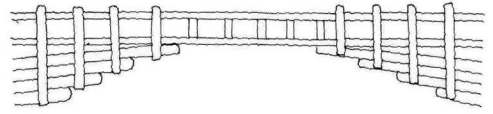


插圖 11) 灌縣竹 索橋(索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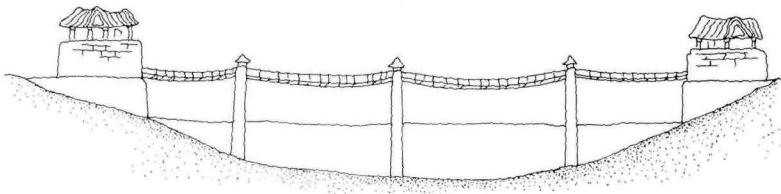


插圖 11) 鐵吊橋 索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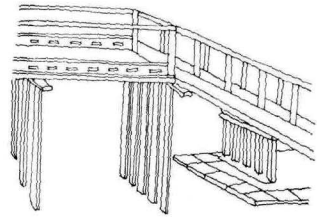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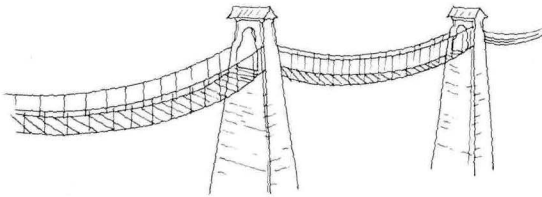


插圖 12) 木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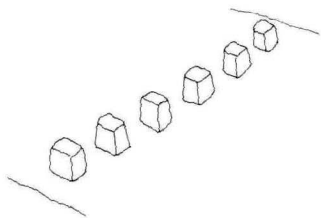


插圖 13) 跳墩子

插圖 14) 廊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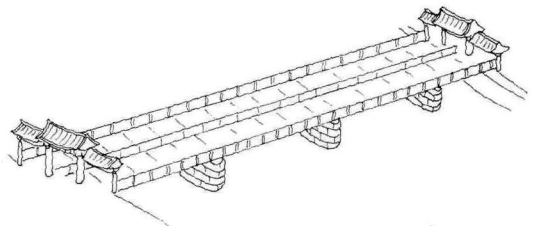


插圖15) 木筏, 竹筏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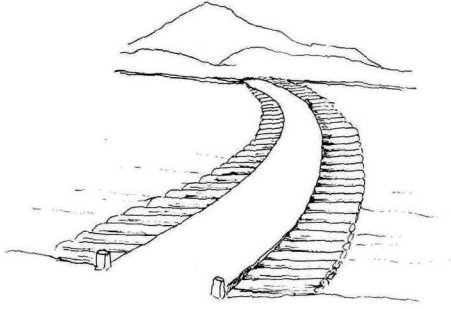


插圖16) 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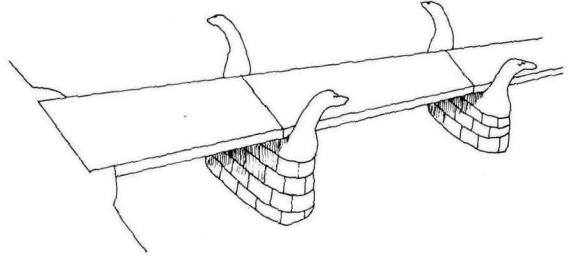


插圖17) 曲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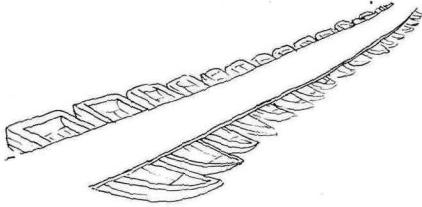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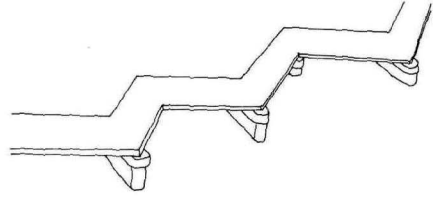


插圖18) 浮橋

插圖20) 弧狀券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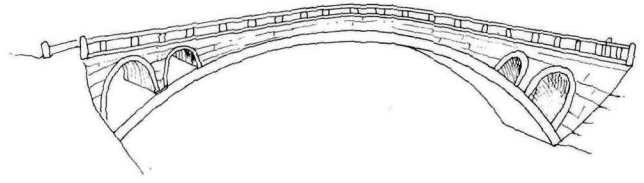


插圖19) 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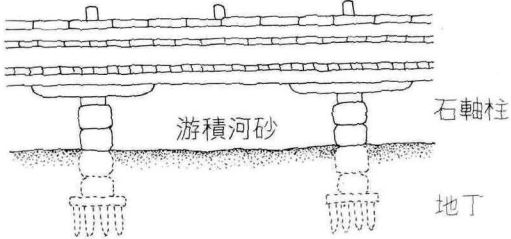


插圖21) 清式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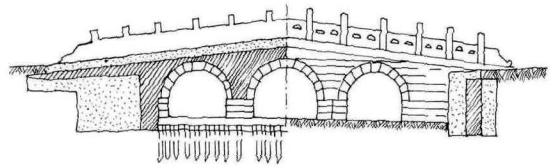


插圖 22-1) 券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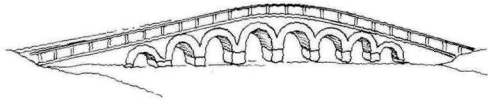


插圖 22-2) 券 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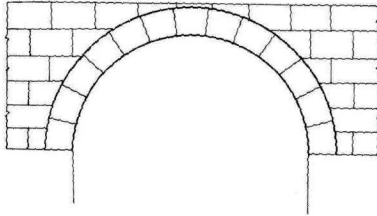


插圖 22-3) 券橋の 築橋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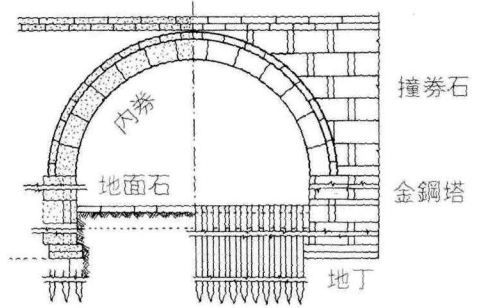


插圖 23) 趙縣 安濟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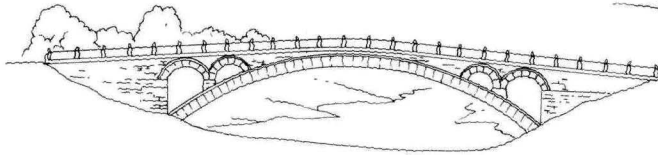


插圖 25) 月精橋址 平面圖 S=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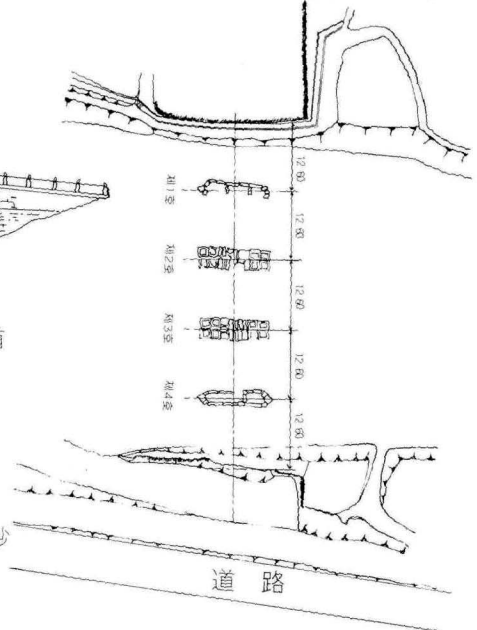


插圖 24) 陝西 西安 灞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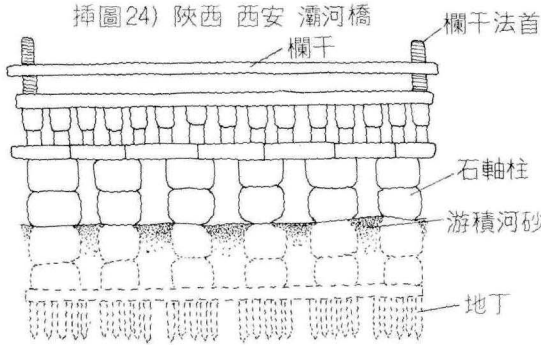


插圖 26) 東北 鄉間門前 神杆



插圖 25)

